

退溪의 朱子詩 理解

—武夷櫂歌를 中心으로—

金 周 漢

<目 次>

I. 序

II. 本

1. 朱子詩 關心과 受容

2. 武夷櫂歌 理解

3. 韓國文學批評史上 位置

III. 結

I. 序

이 글은 題目 그대로 退溪의 朱子詩 理解의 一端을 살피고자 하여 쓴 것이다. 退溪의 詩가 二千餘首에 達하는 것으로도 그가 作詩를 얼마나 즐겼는가를 알 수 있으며, 朱子 역시 많은 詩를 남겼기에 詩人이라 불리도 되리라 생각한다. 朱子는 退溪에게 거의 절대적 영향을 떤진 사람이기에 그의 詩도 退溪에게 많이 受容되어 退溪의 詩境을 가꾸는데 크게 작용했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전제에서 우선 먼저 退溪가 朱子의 詩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를 主로 그의 文集에 실린 往復書翰을 通해서 살피고, 또 아울러 朱子詩 受容 樣相을 검토한 뒤, 두번째로 이 글에서 가장重心이 되는 武夷櫂歌를 어떻게 理解하고 즐겼던가를 알고, 세번째로는 이런 櫂歌의 理解態度가 우리 韓國文學批評史上에서 차지하는 位置를 定立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筆者が 1982年 11月 28日 鎮南語文學會 第71次 月例發表會에서 發表한 것을 정리한 것이기에 별다른 進展이 없었음을 출직히 고백하며 아울러 이미 發表된 有關 論文을 많이 참고했음을 밝혀 둔다.¹⁾

1) 抽稿, 李退溪文學批評小攷(安東文化 第2輯, 安東大學, 安東文化研究所, 1981. 12. 20)에서 引用한 것 外에 多數 論文이 있음.

李敏弘, 「武夷櫂歌」受容을 通해 본 士林派文學의 一樣相一退溪·河西·高峯을 中心으로—, 韓國漢文學研究 第六輯, 韓國漢文學研究會, 1982. 12. 30.

II. 本

1. 朱子詩 關心과 受容

序文에서도 言ふれば 退溪는 朱子에게서 거의 절대적이라 할 만큼 영향을 받았다. 高峯 奇大升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 보면 退溪가 얼마나 朱子를 尊信했는가를 알 수 있다. 혹 지루한 느낌을 줄지 모르겠으나 引用해 본다.

“……古人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감히 自信하지 말고 스승의 말씀을 믿으라고요. 朱子는 제가 스승으로 모시는 분이며, 동시에 天下古今의 모든 사람들이 스승으로 모시는 분입니다. ……”

……古人不云乎？不敢自信而信其師。朱子吾所師，亦天下古今之所宗師也。²⁾

尊信의 정도가 이런 만큼 朱子의 詩에 있어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졌으리라는 사실은 쉬 간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退溪의 門人인 文峯 鄭惟一이 撰한 言行通述을 참고하면,

“先生께선 詩 짓기를 좋아하셨고, 陶淵明과 杜甫의 詩를 즐겨 읽으셨으며, 晚年에는 더욱 朱子의 詩를 즐겨 읽으셨다.先生의 詩가 처음에는 매우 清麗였으나 그 뒤로는 華麗한 것은 잘라 버리고 素朴한 것과 함께 典實, 莊重, 簡淡한 詩境에 沈潛하여 스스로 一家를 이루셨다. 文章은 六經에 뿌리를 내리고 諸子書를 參考하여 華와 實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文과 質이 적당히 어울려, 雄渾하면서도 典雅하고 清健하면서도 和平했으니 하나 같이 바른 마음에서 우러 나온 것이었다. ……”

“先生喜爲詩，樂觀陶杜詩，晚年尤喜看朱子詩。其詩初甚清麗，既而剪去華靡，一歸典實，莊重，簡淡，自成一家。爲文本諸六經，參之諸子，華實相兼，文質得中。雄渾而典雅，清健而和平。要其歸，則又粹然一出於正……”³⁾

李昌龍, 退溪의 杜詩受容樣相, 國語國文學 87, 國語國文學會, 서울, 1982.5.30.
俞俊英, 九曲圖의 發生과 機能에 대하여—한국 實景山水畫發展의 一例—, 考古美術 第151號, 1982. 9.

2) 答奇明彥論四端七情 第一書. 增補 退溪全書 冊一, 卷十六 書 407頁下.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影印, 1978. 8.15) 以下은 退全, 冊, 卷, 頁, 上下, 左右 등으로 出處를 표시한다. 退溪年譜(冊四, 言行錄 卷七, 年譜中 127頁上左)에는 退溪 60歲 11月에 答한 것으로 되어 있음.

3) 退全 冊四, 言行錄 卷一, 言行通述 門人 文峯 鄭惟一撰 20頁上右.

위에 引用한 글은 비록 退溪自身의 말은 아니지만 高足 門人의 記錄이 고 보면 밑을 수 있는 점이 많다 하겠다. 먼저 退溪의 文集 書札 가운데서 朱子詩에 關心한例를 列舉해 보기로 한다. 우선 退溪 53 歲 壬丑年에 李剛而(名은 楠, 剛而是 字, 號는 龜巖임. 1512~1571)에게 答한 편지를 보면,

“출연히 주신 글월 받자 새 봄도 함께 찾아 왔습니다. …… 말씀하신 霽庵의 感興詩⁴⁾를 覺軒이 註釋⁵⁾한 冊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雲谷等 詩一帙 도 刊行하신다면 열어 볼 수 있을 테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序跋⁶⁾을 위촉하시는 데 當世 文章家에게 부탁하지 않고 보잘 것 없는 저에게 하시니 나 광주자지 않으 줄로 압니다. …… (朱子詩 가운데서) 골라 뽑은 것이 참으로 훌륭합니다만 雲谷二十六絃⁷⁾이나가 奉同張敬夫城南雜詠二十首⁸⁾가 매우 아름다우니 함께 刻印할 수 있겠지요? 만약 卷帙이 이미 定해져서 어둡다면 강고할 순 없겠지요? 감사합니다.⁹⁾

위의 答書에서 우리는 李剛而가 朱子詩 刊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壬丑年에 李剛而에게 答한 글¹⁰⁾에서 退溪는 朱子의 武夷櫂歌 前刻에 誤刻이 많으니 새로 얻은 寫本이 善本이라면 이 善本으로 校對하여 改刊하는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는가?라고도 했다. 이에서 우리는 退溪가 版本, 校讐學에도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門外漢이긴 하나 우리 나라 版本學, 校勘學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결코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그전 그렇고 위에서 우리는 退溪가 朱子의 詩 가운데서 齋居感興二十首, 雲谷二十六絃, 奉同張敬夫城南雜詠二十首 等에 관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앞의 편지로 退溪가 실어 달라고 부탁하면 詩가 제대로 실려서

4) 朱子 齋居感興二十首, 朱子大全(臺灣 中華書局印行) 册一 卷第四(文四至 略稱), 詩, 以下 朱全으로 略稱함.

5) 覺軒註, 蔡註라고도 할. 朱子의 弟子인 蔡沈의 아들 模의 號, 字가 仲覺인데 朱子가 이름과 字를 지었다. 朱子의 感興詩를 註釋했음. 退全 册四 退溪文集改註 卷五 書 536頁 下左.

6) 雲谷數音後序인데 龜巖 編集에 보임.

同上, 改註 卷八 外集, 外集, 編集 610頁 下右.

7) 朱全 册一 文六 詩. 雲谷 二十六絃.

8) 同上, 文三 詩.

9) 答李剛而, 退全 册三 編集 卷四 書, 74~75頁, 53歲 壬丑年. 原文은 月日까지 몇았음을.

10) 同上 75頁 左下.

出刊되었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보내 주신 新刊 晦菴 諸詩를 읽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감히 은혜의
임을 수 있겠습니까? 感興詩 일찌기 본적이 없었으나 權歌註解¹¹⁾는 近問(누가).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어 보기로 복 마르게 기다리더니,
이제(蔡註와 陳註를) 合本하여 저에게까지 들어 왔습니다. 古人(朱子)이 남긴
말씀을 千年 뒤에 다시 接하는 것만 같아 감격이 더할 수 없이 큽니다. 제가 전
시 雲谷, 城南, 諸詠을 침가 印刊해 주도록 바란 바는 雲谷을 노래한 詩 中에서
十二首¹²⁾만 살고, 二十六詠을 빼면 未備하겠고, 또 灌清¹³⁾은 城南二十詠 中의
一首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首만 살고十九首를 빼는 게 아쉬워서 감히 달큼드.
혔으나 재 바람대로 되지 못하여 한스러울 뿐입니다. 아마 君께서 그 詩를 보고
자 할 듯하여 적어 보내니 읽어 보시어 어떻겠습니까?¹⁴⁾

이 편지에서는 齋居感興二十首와 이를 蔡模가 註釋한 것, 權歌九曲十首,
雲谷二十六詠, 城南二十詠 等 七十六首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龜巖集에 보면 退溪集에는 없는 退溪의 書가 실려 있는데 위의 作品 말고
도 또 다른 詩에 言及하고 있으니 引用해 본다. 먼저 李剛而의 文.

“처음 鑄字本 感興詩註解¹⁵⁾를 언어 入板을 끝낸 뒤에 擬古八首,¹⁶⁾ 雲谷雜詩,¹⁷⁾
武夷雜詠,¹⁸⁾ 棒歌十絕,¹⁹⁾ 灌清一絕²⁰⁾을 漁艇詩²¹⁾ 아래, 棒歌詩²²⁾의 위에 添錄하
여 一編을 만들어 印刷한 뒤 退溪先生께 敬稟했다. 先生께서 淳陋하다 여기지
않고 丁寧·切當하게 가르쳐 주시기에 再三 盡讀하고는 삼가 가르침을 따라, 城

11) 退全 册四 攷證 卷四書 518頁 上左에 보면 元나라의 權齋 陳普가 “朱子의 武夷
權歌 九曲詩는 寫意가 한 가닥 進道次第에 있지 단순히 武夷山水의 아름다움만
노래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註를 달았다고 했다.

12) 朱全 册一 文六 詩에 雲谷雜詩 十二首, 곧 登山, 值風, 蘭月, 謂客, 勞農, 講
道, 懶人, 僊遊, 修書, 宴坐, 下山, 還家임.

13) 同上, 文三 詩에 奉同張敬夫城南二十詠, 곧 納湖, 東渚, 詠歸橋, 船齋, 麗
澤堂, 蘭澗, 書樓, 山齋, 蒙軒, 石瀨, 卷雲亭, 柳堤, 月榭, 灌清, 西嶼, 靜淨谷,
聽雨舫, 梅堤, 采菱舟, 南阜임.

14) 答李剛而, 退全 册一, 卷二十一, 書 510頁 上左, 53歲 癸丑年.

15) 同註 5)

16) 朱全 册一, 文一, 詩.

17) 同上, 册一, 文六, 詩 雲谷雜詩十二首.

18) 同上, 册二, 文九, 詩 武夷精舍雜詠并序. 精舍, 仁智堂, 隱求齋, 止宿寮, 石
門塢, 觀善齋, 寒棲館, 晚對亭, 鐵笛亭, 魚磯, 茶竈, 漁艇. 十二首.

19) 同上, 武夷權歌十首.

20) 同上, 册一, 文三, 詩 奉同張敬夫城南二十詠中의 一首.

21) 同註 18) 詩 十二首中 맨 끝首.

22) 同註 19)

南二十詠, 百丈山六詠,²³⁾ 雲谷二十六詠²⁴⁾ 등 모두 52首 및 宿休庵一律²⁵⁾을 擬古·第八章과 雲谷第一詠 사이에 補入했다. 또 洞天一絕²⁶⁾을 漁艇과 棒歌兩詩 가운데 墳刻하고 濁清一絕은 刊去하여 같은 종류(同題)에 따로도록 했다. 아울러 感興詩 뒤에 있는 卞春亭의 篆字跋을 刪去했으니 무릇 보태고 빼는 것을 하나 같이 先生의 가르침에 따라 行과 字를 分排하여 編帙을 刊成해서 先生의 뜻을 끝까지 살렸으니, 이 글을 읽는 뒷 사람들이 어찌 이 책에서 느끼는 바가 없겠는가? 嘉靖 甲寅 龜巖居士 李楨은 삼가 기록한다.²⁷⁾

위의 글은 龜巖 李楨이 四十三歲 때 쓴 글이니 退溪 五十四歲 때이다. 위의 글에서 우리는 剛而가 朱子詩를 골라 뽑아 刊行하고 난 뒤 退溪에게 獻했더니, 退溪가 더 많은 詩를 실을 것과, 순서를 詩題의 類에 따라 바로 잡을 것과, 또 빼는 것 등을 요구하기에, 일일이 指教에 따라 작업을 끝내고 出刊했다고 했다. 退溪가 요구한 내용이 담긴 글은 위에 引用한 龜巖의 글 바로 앞에 「附退溪先生書」라고 하여 실어 놓았다. 읊겨 본다.

“오른쪽의 城南二十詠, 百丈山六詠, 雲谷二十六詠, 共 五十二首와 新刊에 例태이 실은 武夷雜詩 等의作品은 辭旨와 理趣가 함께 어울려 때양 謂詠할 때마다, 遷世棲雲·抱道長終의 意思를 가지게 하는데, 현재 刊行한(朱子詩)選本에는 모두 빼어 버리고 싶지 않았으니(朱子詩를) 알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두고 말한다면 感興詩 以下 諸篇은 모두 越人의 章甫라 하더라도, (詩를) 알고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冊을 보게 한다면 어찌 이런 사실을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지의 뜻으로는 大州²⁸⁾의 능력으로 改刊코자 한다면 四五板 工夫에 지나지 않

23) 同上, 册一, 文六, 詩. 石磴, 小澗, 山門, 石臺, 西閣, 瀑布 六首임.

24) 同上. 雲谷, 南澗, 瀑布, 雲關, 蓮沼, 杉逕, 雲莊, 泉磽, 石池, 山楹, 藥圃, 井泉, 西寮, 晦庵, 草廬, 懷仙, 指手, 雲社, 桃蹊, 竹塢, 漆園, 茶坂, 絶頂, 北澗, 中溪, 休庵.

25) 未詳, 或 註 24)의 마지막 休庵을 말함인지.

26) 朱全 册一, 文六, 詩. 武夷七詠中 第二首인 「洞天」. 天柱峯, 洞天, 謂鶴, 仰高堂, 趨真亭, 大小藏巖, 丹龕임.

27) 龜巖集 原集 卷之一 識, 文波文庫, 嶺南大圖書館. 原文 실지 않음.

28) 「大州事力」이란 龜巖이 41세, 壬子十月에 清州牧使로 赴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는 듯하다(龜巖 原集 卷之二 附錄 行狀). 또 行狀에 보면 龜巖이 守令으로 있을 때 많은 冊을 刊行했고 자기 고을에 册板이 없을 때는 이웃 고을 守令에게 出刊을 종용했다고 적고 있다. 이 册 中에는 朱子詩集도 刊行한 것으로 되어 있음. 「……中朝性理之書, 或有未盡刊行於吾東者, 亦與退溪往復訂定 相與跋之. 如孔子通紀, 二程粹言 程氏遺書, 外書, 伊洛淵源續錄, 濟瀆風雅, 撃壤集 延平答問,

을 것이니 무엇 때문에 改刊의 어려움을 근심하겠습니까? …… 卷末에 스스로 題識한 끝 부분에 「君子云吁謹識」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그렇게까지 해롭지는 않으나 語勢가 조금 局促한 것 같습니다.

滉의 생각에는 「博學君子改正云」이라고만 하고 「吁」字는 빼어 버리고, 바로 公의 姓名을 써서 「某謹識」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면(표현이) 병동이 없을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退溪 李滉 景浩는 쓴다.²⁹⁾

이로써 龜巖이 41세 壬子年 十月에 清州牧使로 赴任하여 朱子詩選集을 편집 出刊하는 과정에서 退溪의 뜻을 전적으로 반영했음을 알 수 있으며 더욱 「吁」字 하나까지도 退溪의 의견에 따라 쓰지 않았음을 雲谷徵音後識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곧

“시번 櫛歌註解寫本을 열었는데 그 속에 誤字, 乙字, 落字가 간간이 섞여 있으나 善本을 求하지 못해 參較하질 못하고 그대로 入板했다. 그래서 늘 완전하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올 봄에 廬子膺이 申靈川의 手書善本을 求하여 손수 빠져 보내 주길래 받아 읽었더니…… 그대로 두어 博學君子가 更考 改正하길 기다린다. 乙卯 仲春 初吉 龜巖 李楨은 삼가 기록한다.”³⁰⁾

라고 적었다. 이 글에서 보면 退溪가 指教한 대로 「吁」字를 뺐음을 알 수 있다. 乙卯년이니까 龜巖 44세, 退溪 55세 때로 두 분이 朱子詩 刊行에 즈음하여 주고 받은 내용들이다. 곧 龜巖이 41세 壬子年 十月에 清州牧使로 부임하여 朱子詩選集을 出刊했으니 아마 이듬해 42세 癸丑年인 것 같다. 위 註 9)의 退溪 편지에선 龜巖이 朱子詩를 刊行한다는 소식을 듣고 雲谷二十六詠, 城南二十詠을 補刻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註 14)의 退溪 편지는 新刊 朱子詩選集을 받아 보고 補刻, 刪削, 紙面의 조정 등을 부탁한 것이고, 부탁 대로 되지 못해 한스러워하는 사연도 들어 있다. 그리고 註 29)의 편지는 더 많은 朱子의 詩를 실어 줄 것을 부탁한 편지인데, 龜巖이 指教에 따라 刊行하기로 한 것이다. 이 때가 龜巖 44세, 退溪 55세인 甲寅년이었으며 이것이 增補改正板이었고 그 이듬해 乙卯년에 역시 退溪의 指示로 「吁」字를 빼고 마지막으로 雲谷徵音識를 쓴 것이 아닌가 한다. 위에서 退溪가 關心한 朱子의 詩는 거의 모두가 山水景致를 읊은 詩

朱子詩集, 范太史 唐鑑, 丘瓊山 家禮儀節, 薛文清 讀書錄, 胡敬齊 居業錄, 皇明名臣言行錄, 理學錄, 醫無闇先生集等書, 必入梓於所歷州府. 雖在散地, 若見性理書可羽翼經傳而無板本者 亦力勸傍邑守宰 必使刊行而後已……」

29) 同註 27).

30) 同註 27).

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蔡模의 感興詩註나 陳普의 欽歌詩註도 당시에 많이 읽혔음을 알 수 있으며 또 이註解가當時에만 읽힌 것이 아니고 南春亭 시대(1369—1430, 恭愍王 18~世宗 12)까지 거슬러 올라 갑을 볼 수 있었다. 朱詩 刊行에 읽힌 사연은 그만 두고 다음은 弟子들과 朱子詩 解釋과 鑑賞에 관한 것을 살펴 보기로 한다.

退溪가 55세 乙卯年 仲春에 李剛而에게 答한 글을 보면 朱子의 西林感慨詩에 대해 言及하고 있다. 이 사연 바로 앞에는 退溪가 剛而가 「竿木隨身」이란 말에 대해 물었을 때 答한 내용이 실려 있다. 곧 이 말은 本來禪家의 話頭인데 그 本語인 「竿木隨身 逢場作戲」라고만 적었다. 그렇기에 실제로는 무슨 의미로 사용했는지 모른다. 때문에 여기에 인용한 의미도 또한 알 수 없게 된다. 만약 알고자 한다면 먼저 本語의 意趣를 알고 난 뒤에 이 글(延平答問)을 읽으면 어려울 理가 결코 없을 것이다³¹⁾라고 답했다.

그리고 退溪는 이 말의 뜻을 答吳子強別紙에서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竿木은 오늘날 車上에 끈에 세워 놀이하는 나무입니다. 「竿木隨身，逢場作戲」라는 말은 禪家에서 많이 쓰는 것입니다. 場은 곧 優戲하는 장소이니 ‘몸에 이런 도구가 있으면 어디서나 作用하여 스스로 그만 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竿木如今堅立車上作戲之木也。竿木隨身，逢場作戲，禪家多用此說。場即優戲之場，言身有其具，則隨處作用不能自已也。³²⁾

그러나 위에 引用한 것은 剛而에게 주는 편지의 骨子가 아니고 主된 내용은 오히려 다음에 例舉하는 淫聲과 雅樂의 관계에 있다 하겠다. 곧

“다면 淫聲을 求해서 雅樂과 겸주고자 한다면 먼저 그 淫聲에 마음이 혼들리게 될 것이니 깊이 경계해야만 됩니다.”

“第恐欲求淫聲以較雅樂，先已蕩於淫聲 是不可不痛戒耳。”³³⁾

이는 참된 雅樂이 무엇인가를 알기 為해相反되는 淫聲을 관심하다 보면 먼저 淫聲에 마음이 혼들리게 되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31) 答李剛而 退全 册一 卷二十一 書 511頁, 下右。

32) 答吳子強問目 健, 延平答問 「竿木隨身之說」條. 退全 册二 卷三十三 書 180頁下中。

33) 同註 31)

듯으로, 목적도 좋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도 좋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듯하다. 이는 退溪가 佛書를 읽고 싶을 때도 있었으나 혹 거기에 물들어 빠져 들어 갈까 두려워서 읽지 않았다는 얘기와 같은 것이라고 하겠다.³⁴⁾

이렇게 淫聲을 멀리해야 雅樂을 바르게 들을 수 있듯이 聖賢의 글을 專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晉儒의 學問이 어떤 것인가 분명히 알기 為해 禪學의 理論을 벌어 온다는 것은 안될 말이니 그런 前例가 바로 延平答問에 있는 朱子와 李侗과의 問答內容中의 「竿木隨身」³⁵⁾이란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朱子의 詩 中에서 상당히 유명한 感慨詩에 言及했다. 이 詩는 朱子의 思想 轉變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作品이기 때문에, 退溪가 禪家의 用語에 이어 바로 引用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退溪는 이 글에서 西林感概詩라고 했고 또 朱子大全 詩 初卷에 있다고 했으나 筆者가 가지고 있는 四部叢要本(臺北, 中華書局 影印本)에는 西林感概詩란 題目도 없고 또 初卷이 아니라 第二卷에 있는데 退溪가 말한 것은 어떤 版本인지 모르겠다. 여기서 西林은 西林院을 가리키며 僧 惟可師의 緇이 있는 곳이다. 「感概」란 말은 朱子의 西林院詩에 나온다. 朱子가 西林院에서 쓴 詩는 모두 六首에 達한다. 그 西林韻을 使用한 詩도 二首 있다.³⁶⁾

첫째, 題西林院壁二首 둘째, 題西林可師達觀軒一首 세째, 再題并序一首 네째, 示西林可師二首인데 모두 七言이다. 感概란 말이 들어 있는 詩는 이 中 세째 再題라는 題目이 붙은 詩이다. 곧

古寺重來感實深，小軒仍是舊窯臨，
向來妙處今遺恨，萬古長空一片心。

起句에 感慨란 말이 들어 있어서 退溪가 西林感概詩라고 한 게 아닐까 한다. 이 詩에는 朱子가 直接 쓴 序文이 있다. 내용은 대강 이러하다. 紹興庚辰年 겨울(1160年, 朱子 31세) 朱子가 그의 스승 隨西先生(李侗, 字 慶

34) 退全, 冊四, 言行錄 卷二, 類編 42頁 下右. 「右記先生衛道之嚴凡六條」中 第一條에 「先生於異端 如淫聲美色, 猶恐絕之不嚴 詈曰我欲看佛經以覈其邪遁, 而恐如涉水者初欲試其淺深, 而竟有沒溺之虞耳. 學者但當讀聖賢書, 知得盡, 信得及, 如異端文字全然不知 亦不妨也(鶴錄).」

35) 退全, 冊四, 攷證 卷五 書 537頁 上右.

36) 朱全, 冊一, 文二, 用西林舊韻二首.

中, 號 延平)을 배알한 뒤 西林院의 惟可師의 舍宅에 묵었다. 可師가 軒을 지었는데 鉛山尉 李公 端父가 達觀軒이라고 이름을 지었다(이는 賈誼 鵬鳥賦 中 「達人大觀, 物無不可」에서 한 것) 朱子가 작난 삼아 詩를 치어 준 뒤 잊어 버렸다. 壬午 春(1162, 朱子 33세) 다시 先生 延平을 봤고 옛날 詩를 읽어 봤으나 朱子의 마음엔 한 치만큼의 진전도 없어서 세번 크게 탄식하고 詩를 없애고자 했으나 可師가 말려서 손수 써 주고 까닭을 적었다. 詩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후일 다시 볼 때 교훈의 자료로 삼을 만하다고 생각하면서, 可師도 자신과 같이 여러 곳을 유람하고 佛法의 大意를 물다가 아쉬운 채로 돌아 왔으니 朱子 자신의 뜻을 알아 줄 것 같다고 하고 “三月 九日에 烹는 적는다”고 했다.³⁷⁾ 朱子는 24세에 처음 延平을 봤고, 29세 때 再次 만났으며, 31세 때 정식으로 弟子禮를 갖추어 가르침을 받고, 33세 때 四次 拜見, 34세 10月에 延平이 作故한다. 이듬해 35세에 先生 延平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통곡한 것이 朱子가 延平을 從遊한 始末이다. 아래서 朱子는 스승에게서 깊이 있는 학문을 못 배운 사실을 뜻내 아쉬워 하곤 했다.³⁸⁾

退溪가 西林感慨詩에 관심한 까닭은 아마 이 詩가 朱子의 思想轉變을 잘 알려 주고 있다는 것일 게다. 朱子의 儒家思想의 發展過程은 그만 두고라도 더욱 중요한 釋·老에서 儒學으로一大轉換을 했던 자취가 이 西林院에서 쓴 六首의 詩에서 역력히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삼아 朱子의 家庭教育環境과 父親死後의 受業 및 延平에게 正式으로 師事 하던 내력을 간단히 言及하고자 한다. 朱子의 父親은 이름이 松, 字는 喬年, 號를 草齋라고 했다. 詩·文에 能하여 官職을 歷任하고 實錄編修에 참여했으며, 끝내는 金國과의 和議를 주장하는 秦檜와 뜻이 맞지 않아 外職으로 나왔다가 벼슬을 그만 두고 물려 났다. 성질이 조급하면 道를 害롭게 한다고 하여, 옛 사람(西門豹)이 성질 급한 것을 고치려고 절진 가죽을 차고 다녔다는 故事를 따라 齋를 草齋라고 했다 한다.³⁹⁾ 또 父親의 人品에 對해서는 “어려서 豪爽하여 남을 놀라게 할 만한 말들을 많이 하

37) 朱全, 册一, 文二, 詩 再題并序.

38) 答何叔京 三十二書之第一書, 第二書, 朱全, 册五, 文四十. 答林擇之 三十三書之 第二十書. 同上, 文四十三 等에서 스승을 일컬어 원 슬픔을 토로했다. 곧 앞의 두 편지에서는 각각 「孤負此翁耳」, 「辜負教育之意」, 뒤 편지에서는 「謹有山頽染壞之歎」이라고 했다.

39) 皇考朱公行狀, 朱全, 册十一, 文九十七.

여 賈誼, 陸贊의 學問을 흡모했으며 그 뒤 龜山 楊時의 門人에게 道를 물고 學業을 연마했다”⁴⁰⁾고도 했다. 또 “先君子께선 젊어서 物外高人과 交遊했다”⁴¹⁾고도 기록하고 있다. 위에서 朱子는 父親의 學問淵源이 龜山 楊氏의 門人에 있다고 했으나, 디 구체적으로는 龜山의 門인인 羅從彥에게서 배웠다고 했는데 龜山은 程子에게서 배웠으니 바로 程氏의 學問에 연원이 닿고 있다.⁴²⁾

이로 볼 때 父親 松의 학문이 기본적으로는 儒家의 學問이지만, 豪爽하여 物外高人們과도 교유했던 폭이 넓은 人品의 소유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래서 朱子는 少年時 儒書를 배웠으나 十四세에 부친을 여의고는 遺命에 따라 籍溪 胡憲 原仲, 白水 劉勉之 致中, 屏山 劉子翬 彦冲, 三人에게 父事之를 하게 되었다.⁴³⁾ 그러나 위의 三人은 佛·老에 깊이 관심한 분들이기에 少年 朱子도 많은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되며 朱子自身도 시인하고 있다.⁴⁴⁾

특히 佛教는 禪의 영향이 至大했다고 한다. 부친의 庭訓으로 古人 爲己之學에 뜻을 두었으나 方法을 터득하지 못하고 釋·老 사이를出入한 지가 十餘年이나 되었다⁴⁵⁾고 했으며, 空妙한 世界에 二十餘年이나 마음을 헤매이게 했다⁴⁶⁾고도 고백했다. 이래서 甚至於는 十九세 때 禪에 관한 엉성한 지식으로 科試에까지 합격했다고 말하고 있다.⁴⁷⁾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다. 곧 朱子가 同安縣 主簿로 赴任하던 22세부터 26세(辛未~乙亥) 사이의 詩를 손수 모아서 牧齋淨稿라 했는데 이 五年 사이에 쓴 詩에는 道家的, 佛教的 精神世界를 憧憬하는 詩語와 詩意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⁴⁸⁾ 그러나 朱

40) 與陳君舉書, 朱全, 冊四, 文三十八.

41) 書先吏部與淨悟書後, 朱全, 冊十, 文八十四.

42) 延平先生李公行狀, 朱全, 冊十一, 文九十六.

43) 同註 42)

44) 朱子一, 自論爲學工夫, 朱子語類(以下 語類로 略稱함), 冊七, 卷第一百四. 臺灣, 正中書局印行, 中華民國五十九年.

劉·胡 諸儒學案, 全祖望, 宋元學案, 卷三十九, 臺灣, 中華書局印行.

45) 答江元道, 朱全, 冊四, 文三十八.

46) 答薛士龍, 朱全, 冊四, 文三十八.

47) 同註 44) 前條.

48) 題謝少卿藥園二首의 題下에 小註로 「自此詩至卷終 先生手編 謂之 牧齋淨稿」라 引음, 朱全, 冊一, 文一 詩.

錢穆, 朱子從遊延平始末, 朱子新學案(以下 錢案으로 略稱함.) 冊三, 臺灣學生書局印行, 中華民國六十年. 劉述先, 朱子哲學思想의 發展與完成 21~50頁, 臺灣 學生書局, 中華民國七十一年二月 初版.

子가 24세 때 延平을 만나 많은 討論을 거치면서 檀자로 儒家 爲己之學의 骨子인 正心, 誠意의 學問(心學)에 깊이 물두하게 된다.⁴⁹⁾

朱子語類에는 “籍溪, 屏山에게서는 此道(儒家之學)를 [들을 수 없어서] 부친과 同門友⁵⁰⁾인 延平 李侗에게 師事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朱子 25세(甲戌), 26세(乙亥)兩年에 聖人書를 읽어 聖賢의 言語에 檀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로 儒學으로 돌아 서게 되었다고 한다.⁵¹⁾ 그 뒤 29세 때 再次 延平을 뵙고는 가르침을 받았으니, 지금까지 관심하던 懸空玄妙한 道理는 생각하지 않고 日用著實工夫를 하게 된 것이며 더 옥 經學工夫로 實理를 터득하여 以前에 師事하던 諸人們의 見解가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믿게 되었다고 한다.⁵²⁾

31세 때 三次로 延平을 뵙고는 드디어 弟子禮를 갖추어 受學하게 된다. 延平은 이 해에 그의 친구 羅博文에게 보낸 편지에서 朱子를 칭찬하기를, 자기의 스승인 羅從彦 以後에 이같은 사람을 못봤다고 할 정도였다. 그리고 禪僧 謙開善에게서 裏面體認의 工夫를 배웠기에 延平과 討論할 때 一致하지 않는 곳이 있었으나 끝내는 道理 그 自體에 구애되지 않고 日用處에 專心努力하였다고 적고 있다.⁵³⁾

31세 때 西林院에서 延平과 아침 저녁 討論하면서 쓴 詩가 있었고, 西林感慨라고 하는 詩는 2년 뒤 33세 때 와서 다시 쓴 것이기에 題目 또한 「再題」라고 붙였던 것이다. 이렇게 朱子가 四次나 延平과 토론하면서 얻은 내용은 세 가지라고 한다. 첫째는 「道理를 日用人生上 融會하라는 것」, 둘째는 「古聖經義를 읽어야만 한다는 것」, 세째는 「理一分殊에 대한 것인데 어려운 곳은 理一 쪽이 아니라 정작 分殊 쪽이라는 것」이다.⁵⁴⁾ 理一에 집착했던 朱子는 檀자 分殊를 중요시하게 되었음은 朱子의 孫婿 趙師夏가 쓴 跋延平答問에서 잘 나타난다. 곧 朱子는 趙師夏에게 말하길 자신은 「好同惡異, 喜大恥小」의 기질이 있어 延平과 의견이 항상 어긋났다는 고백이 그것이다.⁵⁵⁾

49) 同註 42), 44) 및 清 王懋竑撰 朱子年譜 (以下 王譜로 略稱함) 卷之一, 上, 八頁, 臺灣 世界書局, 中華民國 六十二年 四月 三版.

50) 同註 42), 44)

51) 錢案, 冊三 十六~十七頁.

52) 同上註.

53) 同註 49)의 王譜 十六頁 및 錢案 冊三 二十七頁.

54) 錢案, 冊三 三十五頁.

55) 王譜, 十三頁, 二十九세 條.

또 分殊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穩·老 特히 禪의 사고와 크게 다른 것이라 한다. 위에서는 朱子 33세까지의 學問, 思考의 變遷過程을 略述했다. 어쨌든 再題詩 곧 西林感慨詩는 穗·老 더 출히 말하면 禪의 思考에서 멀리 떠나고, 延平과 토론을 거쳐 確信을 갖게 된 뒤의 性情을 노래한 것이기에 지극히 중요한 詩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退溪가 이 詩를 論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이 論文에서는 武夷櫂歌를 中心으로 살펴보고 하기 전에 상세히는 다룰 수 없으나, 다만 李剛而가 退溪 65세 때인 乙丑年(1565)에 질문한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剛而의 질문은 여러 條目이 있다.

우선 「萬古長空一片心」, 「底是高人達觀心」, 「泡沫風燈敢自憐」 세 句인데, 끝 句는 櫂歌를 살필 때 言及하기로 하고 앞의 두 句에 대한 退溪의 解說을 옮겨 본다. 原詩를 引用하는 게 편리할 것 같다.

깊고 깊은 雲房은 아득하고 그윽해
현함의 계단이야 순식간에 올랐네.
발 걷고 바라보니 먼 산만 푸른데,
무엇이 高人們의 達觀한 마음인지 ?

窈窕雲房深復深, 屢軒俄此快登臨,
卷簾一目遙山碧, 底是高人達觀心.⁵⁶⁾

옛 걸을 다시 오니 감개가 무량해,
작은 현함 올라 보니 옛 모습 그대로네.
지난 날 묘한 경지 지금엔 한스러워,
긴 세월 허공중에 한 가닥 마음이여.

古寺重來感慨深, 小軒仍是舊窺臨,
向來妙處今遺恨, 萬古長空一片心.⁵⁷⁾

먼저 庚辰年 겨울 朱子 31세 때 지은 앞의 詩 「底是高人達觀心」一句의 물음에 대한 退溪의 答을 옮겨 보면,

「底是高人達觀心」의 「底是」는 「何者是」 곧 「무엇이 무엇이냐?」란 뜻과 같습니다. 대개 賈賦(賈誼의 鴻臚賦)의 「通達한 사람」이 크게 보니 어떤 物이든지 존재 이유와 가치를 다 가지고 있네(物我一體)」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惟可師가)

56) 題西林可師達觀軒, 朱全, 册一, 文二, 詩.

57) 再題, 同上註.

그 말을 빌어 軒名을 達觀軒이라 했기 때문에 「一目」 가운데는 다만 「遙山碧」 곧 「먼 산이 푸르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高人의 達觀心」인지 모르겠다고 (朱子가) 말한 것입니다. 佛者가 달하기를 世間의 萬法은一切가 마음으로부터 造成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詩도 그 말을 따라서 (惟可師에게) 한번 물어 본 것일 따름입니다.

底是高人達觀心。底是猶言何者是也。蓋賈賦：達人大觀，物無不可。今取以名軒故謂一目之中只有遙山碧而已，不知何者是高人達觀心耶？佛者云：世間萬法，一切由心造，故此亦因其語而試問之耳。⁵⁸⁾

朱子가 이 때도 禪僧 惟可師와 論難을 하곤 했으나 역시 延平을 만나기以前과는 많은 心境의 변화를 가져 왔기 때문에 達觀이란 말에 대해 물어본 것이 된다. 여기서 退溪가 佛者의 「世間萬法，一切由心造」라는 말을 가지고 朱子가 可師에게 물어 본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朱子는 佛·老를 염격히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應觀法界性，一切唯心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⁵⁹⁾

때문에 退溪가 이렇게 물어하는 것도 별씨 朱子의 儒·釋異同을 分明히 구별하기始作한 심경을 간파했다고 보겠다. 朱子는 34세 때 汪尚書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自身이 釋氏之說에 심취했다가 그 뒤 先生君子(延平 李侗)의 가르침을 받고는 佛教를 버리고 吾學(儒學)에 從事했다고 했다.⁶⁰⁾ 이로 볼 때 朱子의 심경이 많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再題詩의 「萬古長空一片心」에 대한 剛而의 물음에 보낸 退溪의 答書를 살펴 보자.

「萬古長空一片心」：이 句에 대해서는 混도 늘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上句에서 「向來妙處今遺恨」이라 하고는 이 句로 바로 연결하였으니 이는 바로 (再題詩의) 序 가운데서 말한 「체월은 흘렀건만((31세에서 33세까지 만 2년) 내 마음의 境界는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長空一片心」이란 것은 그 語意가 曠蕪虛邈하여 허공중에 달아 놓고 얘기하는 것으로서 전혀 禪家의 頓超하려는 氣味 같을 뿐, 吾儒가 心을 說明하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는 先生(朱子)께서 이 대 세로 이 禪學의 그릇됨을 깨닫고, 또 僧房에

58) 退全, 册一, 卷二十二 書, 539頁 下中。

59) 答王子合 遇十八書中 第九書 丁未(58세) 十二月二十五日과 第十書 朱全, 册六, 文四十九 및 册七, 文七十 記敘에 「……又云 心即性 性即天, 天即性, 性即心, 此語亦無倫理. 且天地乃本有之物, 非心所能生也. 若曰心能生天之形體, 是乃 釋氏 澄成國土之餘論, 張子嘗力排之.」

60) 朱全 册四 文三十 答汪尚書 十一書中 第二書(癸未, 34세 六月九日).

寓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에 느낀 바 있어 스스로 말하길 ‘지난 날 妙悟處라고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도리히 遺恨이 되었다.’고 한 것이 아닐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곧 舀心을 萬古 오랜 세월 동안 높은 허공중에 걸려 있는 하나의 고독한 物體인 것처럼 오인해서 학문의 길에 잘못 발을 들여 놓았음이 이와 같아 한스럽다고 한 것일 뿐이라고 풀이한다면 어떨까요?”

萬古長空一片心 此句混亦每以爲疑. 觀其上句 謂向來妙處今遺恨 而系以此句. 正是序中所謂 歲月逝矣 而予心之所至者, 未尺寸進焉者. 但所謂長空一片心者 語意曠蕩虛遼 懸空說著. 全似禪家頓超氣味, 不類吾儒說心處. 無乃先生 於是時 新覺禪學之非, 因寓僧房而有感於此事, 自言向來自以爲妙悟處 今却有遺恨者, 何也? 即誤認吾心爲萬古長空一片孤懸底物. 其誤入如此. 所以爲可恨云爾耶?⁶¹⁾

여기서 退溪는 儒·佛의 갈림길이라고 볼 수 있는 「心」에 대한 朱子의 해석을 문제 삼고 있다. 朱子는 觀心說이란 글에서 「心은 하나이지 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물기를 ‘佛者에게 觀心說이란 말이 있다는데 그렇습니까?’라고 했다. 대답하기를 ‘무릇 心이란 사람이 그것으로써 一身의 主人으로 삼는 것이 라서 하나이지 둘이 아니며, 主人이자 客이 아니며, 物을 명령하는 것이지, 物에게 命令 當하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心으로 物을 보면 物의 理가 보이지만, 이제 다시 반대로 物로써 心을 본다고 한다면 이는 이 心 밖에 또 다른 하나의 心이 있어서 이 心을 管攝한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主人입니까? 客입니까?, 物을 命令하는 존재입니까? 物에게 명령을 당하는 존재입니까? 이는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그(佛者)의 말이 틀렸음을 알 수 있읍니다.

或問 佛者有觀心說 然乎? 曰 夫心者, 人之所以主乎身者也. 一而不二者也, 爲主而不爲客者也, 命物而不命於物者也. 故以心觀物則物之理得. 今復有物以反觀乎心, 則是此心之外復有一心, 而能管乎此心也. 然則所謂心者爲一耶?, 爲二耶? 爲主耶? 爲客耶? 爲命物者耶? 爲命於物者耶? 此亦不待教而審其言之謬矣...⁶²⁾

또 釋氏論 上下篇이 있는데 그 上篇에서는 孟子의 盡心知性, 存心養性과 釋氏의 識心見性에 대한 물음에 朱子가 答하고 있다. 글이 길지만 전부 引用해 본다.

61) 同註 58)

62) 觀心說, 朱全, 冊八, 文六十七.

“이면 사람이 물기를 孟子가 盡心知性, 存心養性을 말한데 비해 釋氏之學에서도 역시 識心見性으로써 근본을 삼으니 그 道理가 우연하게도 같은 점이 있다고 어찌 말하지 못하겠습니까? 朱子 가로대 儒佛이 다른 까닭은 바로 이 한마디일 뿐입니다. (或曰) 무슨 뜻입니까? 예! (말씀드리지요,) 「性」이라고 하는 것은 天이 사람에 命令해서 (사람의)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며 「情」이란 것은 性이 物에 應해서 心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心」이란 것은 사람이 그것으로써 一身의 主人으로 삼아 性과 情을 統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仁義禮智는 性이기에 「心의 體」가 되며, 慎隱, 蕤惡, 恭敬, 酣讓은 情으로서 「心의 用」이 되는 것입니다. 「무릇 (하늘이) 民에게 裏(心)을 내려 주니 物이 있으면 則이 있다.」라는 말은——중간에 글자가 없어진 곳이 많음 筆者——그(佛者)의 「謙心」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별도로 한 마음을 설정하여 놓고 그것으로써 이 心을 안다는 말이며 그들이 말하는 「見性」이란 것도 「民妻, 物則」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性의 本然한 모습을 보자 못한다면 物의 感하는 바와 情의 發하는 바가 마땅한道理를 얻을 수 없읍니다. 이에 (佛者는) 한 몸의 累가 된다 하여 모두 풀어 없애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天常을 거역하고 人理를 모두 없애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것이니, 그렇다면 儒釋의 다른 점이 본디 이 한 마디 사이에 있지 않겠습니까? (或이) 말하기를 釋氏가 見性에 대해 무식하다는 말은 수긍이 갑니다만 「心」에 이르러서는 吾儒는 「다하고 간직한다!」고 하고, 저네들은 「안다」고 하니 이제서 다르며 또 따로 한 마음을 설정했다는 사실은 어찌하면 알 수 있습니까? 예! 대답하겠습니다. 마음이란 우리 一身의 主人으로서 性과 情을 統率하는 것이기에 이나이지 둘이 아니며 主人이지 客이 아니며 物을 명령하지 物에 명령 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理를 窮究하지 않으면 物이 (다음을) 혹 떠나 버리기에 그 밝음이 비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私私로움이 극복되지 못해서 物이 '마음에 累를 끼치게 되어 그 (心의) 體가 간직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聖人은 사람들로 하여금 窮理하여 包容할 수 있는 量을 極大化하고 쓰사로움을 이겨서 體(心의)를 해롭게 하는 요인을 제거시키도록 가르칩니다. 이렇게 盡心하여 存心하는데 있어서 힘쓰는 게 서로 다르나 모두가 하나(一心)로 인해서 萬가지에 대응하며 主人으로서 客을 待하며 命物者로서 物을 명령하는 것이지 반대로 이 마음(心)을 알아서 이 (다른) 마음을 간직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釋氏들이 識心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나 하면 (心을) 반드시 「收視反聽」하여 그 體를 慊愾한 가운데서 求하고자 합니다. 이는 마치 사람의 눈으로 눈을 보고 입으로 입을 썹어서, 그 理致를 터득하지 못할 뿐더러 그 형체는 반드시 그 사이에서 서로 대립, 갈등(激爾)하게 되니 이것이 따로 한 마음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릇一心을 따로 설정한다면 하나가 둘이 되고 主人이 客이 되며 …… 또 텅 빈 상태로 스스로의 싱을 쌓고 외부와 등을 둘려서 「情」을 없애고 「事」를 없앰으로써 스스로 王臣, 父子間의 人倫을 버린다면 「心의 用」 또한 없어집니다. …… 異端邪說이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무리들이 대개 실제로 황홀간에 본 바가 있는 듯하여 즐기면서 形骸를 버리는 데까지 이르려도 싫어하지 않고 死生의 變化에도 (마음이) 혼들리지 않음을 왜 그렇습니까? 예! 말씀 드리지요. 그 「心의 用」이 바깥과 交涉하지 않고 그 體가 内部에서 分離되어 있는 것이 스스로 서로 같아져서 (서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志가 일을 일으켜 절실하고 그 동정의 기틀이 심히 위태롭고 절박합니다. 이 때문에 精神의 極에 도달하여서 一旦에 아득하여 두엇을 상실한 것 같아 되니 近世의 「看○之法」이 여기에 이르는 捷徑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모두가 莊周의 「承蜩削鑑」의 論說에 근원을 두면서도 더욱 교묘하게 발전시킨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天理에 이두우면서도 이것만은 힘 써서 私私롭게 한다면 王子의 門에서 얘기할 만한 것이겠습니까?⁶³⁾

위의 글에서 우리는 儒釋異同에 대한 朱子의 견해를 볼 수 있었다. 곧 心은 하나며, 主人이며, 命物者라는 것이다. 그리고 佛家에서 말하는 「一切唯心造」의 견해에도 반대함을 보았으며 「心統性情」과 「體·用」의 관계 설정으로 佛家의 이론을 論駁함도 보았다. 「心性情」三分의 格局을 주장하는 朱子이기에 張子의 이론을 옹호하며 辭佛한다.⁶⁴⁾

朱子의 心은 統性情하는 것이다. 그리고 程伊川의 「性即理」편에 서기에 心의 體는 性, 理요, 心의 用은 情, 氣이다. 따라서 情用은 氣에 해당된다. 그래서 心은 理氣를 아우르고 性情을 統轄하게 된다. 그러나 佛家에서 性을 作用이라고 보기 때문에 性을 體인 理로 보는 儒家の 「心觀」엔 맞지 않는다. 天理가 사람에게 부여된 것을 性이라고 한다. 故로 性은 本來 純善의 標準이다. 이 天理, (本然之) 性에 따라 살아야 한다. 「道心을 肝상 一身의 主」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佛·禪에서는 「性을 作用」으로 본다. 그러나 朱子는 作用 곧 「用」은 性即理의 理가 아니라 理氣의 不離不雜으로 봐서 存養省察로 中節이 될 때 性理가 실현되지만 不中節 될 땐

63) 釋氏論上 建安 吳應樵家藏 湯東潤跋, 朱全, 册十二, 別八. 錢穆은 윗글에 「朱子曰」이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朱子 自作이 아닌 것 같으나 文辭를 보니 그의 門人 中高足弟子가 아니면 不可能한 것 같은 글이라서 引用한다고 했다. 錢案 册三 朱子論禪學上 514頁.

64) 卍宗三, 佛家體用義之衡定, 心體與性體 第一冊, 臺灣, 正中書局, 中華民國 六十二年 十月 臺二版.

性理가 바로 실현되지 않아 善不善의 갈립길이 된다. 이런 것을 두고 性이라고 하니 謹家의 妄念이 생긴다고 본다. 朱子는 48세 때 謹家の 「猖狂行」하여 縱恣하여 檢束이 없음을 비판했다. 「作用是性」의 비판이다. 心의 作用은 情이요 氣이기에 有善不善이다. 그렇기 때문에 氣質之性을 잘 살펴 本然之性에 맞도록 省察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함을 비판한 것이다.⁶⁵⁾ 「作用是性」을 살펴 보자.

“作用이 性이다. 目에 있어서는 (그 作用이) 見이며 耳에는 聞, 鼻에는 飲香” 口에는 談論, 手에는 執捉, 足에는 運奔이 作用이라는 것이니, 곧 告子가 주장하는 「生을 性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 손으로는 잡고 둘이 당긴다고 한다면 칼을 (손에) 잡고 멋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性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龜山(楊時)이 龜居士의 말을 例擧하여 말하기를 「神通妙用은 運水搬柴」 곧 「먹을 물을 길어 오고 떤 나무를 날라 오는 것(이 運搬作用中에 神妙한 性이 있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써 「천천히 이론 뒤를 따라 간다」고 하는 (孟子의) 말에 비유하니 역시 이 痘(作用是性)에 결연 것이다. (그러니) 「천천히 어른 뒤에 간다」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고 「앞질러 어른을 뒤로 두고 달리는 것」이 不敬함을 모르는 것이 된다. 만약에 運水搬柴가 곧 妙用이라고 한다면 「徐行·疾行」 모두를 공경스런 행동과 마음 가짐이라 할 수 있을까?⁶⁶⁾

仁義禮智를 性으로 보지 않고 視聽言動을 性으로 본 謹家の 주장은 비판한다.⁶⁷⁾ 이 외에도 儒釋異同을 강조한 예는 文集에 많이 나타나 있다.⁶⁸⁾

이러한 朱子의 主張을 염두에 두고 退溪의 전해를 살펴 보기로 한다. 退溪의 생각에는 朱子가 「再題」詩를 썼던 33세 때에 延平을 네 번이나 만났던 터이라 謹學의 그릇됨을 깨닫고 종전에 吾心 곧 사람의 마음이 萬古長空에 의로이 달려 있는 客物처럼 생각했던 것을 한스럽게 여겼던 것이라고 풀이한 게 아닌가 한다. 謹家の 工夫는 頓超直入 곧 頓悟를 주장한다. 이는 聖學에서는 下學을 무시하고 上達부터 관심한다고 보기 때문에 孟子의 「宋人과 같지 말라」⁶⁹⁾는 교훈에도 어긋난다. 그리고 朱子가 延平

65) 朱子語類, 冊一, 卷第十二, 正中書局印行, 中華民國 六十二年 十二月 臺三版, 以下 語類로 略稱.

朱子論禪學上, 錄案, 第二冊 502頁. 「異端之學, 不察氣質情欲之偏, 率意妄行, 便謂無非至理, 此尤害事. 近世儒者之論, 亦有流入此者, 不可不察.」

66) 釋氏, 語類, 卷一百二十六. 原文 引用 않음.

孟子或問, 卷十二, 朱子 48歲 六月에 成書, 錄案, 第三冊 參考.

67) 同註 66) 「……吾儒所養者是仁義禮智, 他所養者只是視聽言動……」

68) 答趙致道 師夏, 朱全, 冊七, 文五十九.

69) 孟子, 公孫丑上 「……必有事焉而勿正, 心勿忘勿助良也, 無若宋人然……」

에게서 들은 三大要點中의 하나인 理一分殊의 교훈에도 어긋난다. 곧 理一이 어려운 게 아니고 정작 어려운 것은 分殊의 世界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는 退溪도 그대로 이어 받고 있다.⁷⁰⁾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退溪가 西林院詩에 관심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게 없다고 하겠다. 다음에는 南嶽唱酬集⁷¹⁾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다음 章으로 넘어 갈까 한다. 이 南嶽唱酬錄을 朱子年譜 38세條에서는 이렇게 써 놓았다.

“冬十一月에 南軒 張公과 함께 南嶽 衡山에 오르다. …… 이 달 6日庚午에 譚城으로부터 南嶽으로 가다. 十日甲戌에서 十三日에 이르러 산에 오르다. 十六日庚辰에 내려 오다. 十九日癸未에 남악을 떠나고 二十三日丙戌에 楩州에 이르다. 다음 날 敬夫와 해어지고 伯崇, 擇之와 東쪽으로 돌아 오다. 무릇 二十八일만에 집에 도착하니 十二月二十日이었다. 甲戌에서庚辰까지 七日間 지은 詩를 둑어 南嶽唱酬集이라 하고 敬夫가 序文을 쓴다.丙戌에 贈答한 詩에 대해서는 文集에 南嶽遊山後記⁷²⁾가 있다. 伯崇, 擇之와 東쪽으로 돌아 올 때의 원고는 東歸亂稿⁷³⁾라고 했으며 文集에 東歸亂稿序가 있다.⁷⁴⁾

南軒은 이름이 拟字가 敬夫로 朱子의 道友이며, 范伯崇, 林擇之도 모두 朱子와 學問을 講論하던 直諒多聞의 벗들이다. 뜻 맞는 道友들과 遊山玩水하며 詩情을 누를 길 없어 지은 詩들을 모았고, 그에 관한 내력을 後記와 亂稿의 序文으로 남겼다. 이를 剛而가 印刊하여 退溪에게 보냈던 것이며 退溪 또한 보고 싶어 하던 次라 기쁘기 한량 없다고 적고 있다.⁷⁵⁾ 때에 退溪 나이 열씨 62세였다. 退溪는 詩를 좋아했고 晚年에는 더욱 朱子詩 보기기를 즐겼다는 門人 文峯의 기록으로 보아 더욱 증거가 분명하다고 하겠다. 66세 丙寅年에도 朱詩 刊行에 얹힌 사연을 적은 편지가 있는 것으로 봐서 그의 관심은 오랜 세월 동안 간절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⁷⁶⁾

70) 抽稿, 李退溪文學批評小敘.

71) 答李剛而, 退全, 册一, 卷二十二 書 533頁 上右,壬戌 62세. 册四, 故證 卷五 書 540頁 上右에는 「皇明吉水鄧淮編爲集」으로 되어 있음.

72) 朱全, 册九, 文七十七.

73) 同上, 文七十五.

74) 王譜, 二十九~三十頁, 丁亥 38세條.

75) 同註 71)

76) 答柳仁仲 希春, 退全, 册一, 卷十二 書 330頁 下右, 丙寅 66세條. 「……與李剛而 刊朱詩小簡 一時往復偶爾 皆不足稱說, 不知公何取於是而云云耶? 君子一言以爲智, 一言以爲不智 公之許人如是之不重, 不唯愚者之不敢當, 直恐人之笑議於公也.」

그리고 奇高峯파의 사이에도 退溪는 朱子의 詩에 관해 해설한例가 있으나 다음 기회로 돌린다.⁷⁷⁾

이제 朱子詩 受容에 관해서 알아 볼 차례다. 退溪가 朱詩를 「和·次·用韻」한 것에 대해서만 그 領目을 쳐어 본다.

- 一. 三月病中言志晦菴詩韻(43세)⁷⁸⁾
- 二. 至日有感用晦菴十月朔旦懷先壠韻. 時除禮賓正病不赴是日又廢祠參(46세)⁷⁹⁾
- 三. 和西林院詩韻二首. 三月寓月瀾菴(47세)⁸⁰⁾
- 四. 閱讀武夷志次九曲櫂歌韻十首(47세)⁸¹⁾
- 五. 遊山書亭十二首用雲谷雜詠韻(55세)⁸²⁾
- 六. 浴歸韻(60세)⁸³⁾
- 七. 次韻李靜存見寄(63세)⁸⁴⁾
- 八. 三月三日用晦菴先生一字韻(66세)⁸⁵⁾

위에 든 八種「和·次·用」韻에 대한 것은 미리 摘出한 글이 있어 참고를 했다.⁸⁶⁾一番에 적힌 退溪의 詩는 朱子「春日言懷」에서 운을 빌었다. 退溪의 言志는 朱子의 言懷와 관계가 깊으며, 46세 때의 至日有感詩는 朱子의 十月朔旦懷先壠作에서 次韻했다. 退溪의 이 詩는 마침 나라에서 禮賓正 벼슬이 除授되었을 때 身病으로 조정에 나아 가지 못했고 또 詩를

77) 答奇明彦 論四端七情 第二書 別紙에 晦菴宿梅溪館詩에 대해 풀이하고 있음. 朱全, 册一, 文五 詩에 있음. 「宿梅溪胡氏客館觀壁問題詩自警二絕」

78) 退全, 繕, 卷一, 壬午 43歲. 「春日言懷」朱全, 册一, 文一 詩 壬酉 朱子 24歲作에서 次韻.

79) 退全, 別一, 詩, 丙午 46세. 「十月朔旦懷先壠作」에서 用韻.

80) 退全, 文集, 卷一, 丁未 47세.

제一首는 「題西林可師達觀軒」과 「再題」 각각 朱子 31세, 33세 時 作에서 和答.

제 second는 朱子의 示西林可師二首中 第二首에서 和作. 朱全, 文二, 詩.

81) 退全, 文集, 卷一, 丁未 47세. 「淳熙甲辰中春精舍閉居戲作武夷櫂歌十首呈諸同遊相與一笑」, 55세作, 朱全, 册二, 文九, 詩.

82) 退全, 文集, 卷二, 乙卯 55세. 「雲谷雜詩十二首」, 朱子 丙申 47세 時 作에서 用韻. 退溪의 十二首의 各題目은 同註 12)에서 밝힌 것과 같음.

83) 退全, 繕二, 庚申 60세. 「曾點」, 朱子 32세 辛巳年作에서 次韻. 朱全, 册一, 文二, 詩.

84) 退全, 文三, 詩, 癸亥 63세. 「鵝湖寺和陸子壽」, 朱子 50세 己亥 二月 陸子壽來訪後作, 朱全, 册一, 文四, 詩. 退溪는 自註에서 「靜存은 數學에 精通되었으니 무 苦思하여 微恙이 있다」고 했음.

85) 退全, 文四, 丙寅 66세. 「三月三日祀事畢因修禊事于靈梵以高閣一長望分韻賦詩得一字」에서 用韻. 朱全, 册一, 文二, 詩.

86) 王甦, 李退溪의 詩學. 李章佑 譯, 退溪詩學, 退溪學研究院刊, 1981.4.30.

짓던 그 날은 祠堂에 參禮도 못했었기에 朱子의 先壠作을 次韻한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三의 和西林院詩韻二首는 朱子의 西林院 여러 詩들에서 次韻했는데 이는 朱子의 思考變化에 중요한 관건이란 점에서 의의가 큰 詩이며, 이 詩韻을 退溪가 47세에 次한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으나 깊이 살펴보지 못한다. 四번의 欽歌十首의 次韻은 다음 章에서 다루겠지만 역시 47세 때의 작품으로 朱子의 詩世界에 깊이 들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五번의 遊山書事十二首는 朱子 47세 때 作인 雲谷雜詩十二首에서 次했다. 여기서는 朱子의 原詩가 특히 그래서이겠지만 五言六句의 詩形이 特異하다 하겠고, 또 각首에 불인 詩題가 朱子의 그것과 같다. 退溪 55세 때의 作品이다. 이 때는 아마 퇴계가 朱子大全을 精讀하고 있을 때가 아닌가 한다.⁸⁷⁾ 退溪 56세에 南時甫에게 준 答書에서 「晦菴書 七冊이 이루어졌다 했고 수십년 전부터 이 공부를 못한 것이 한스럽다고 했음을 보고 짐작할 수 있겠다.⁸⁸⁾

다음 60세 作인 裕歸韻은 朱子 32세 作 「曾點」詩를 次한 것이다. 朱子 31세 仲冬 以前에 「말이 많으면 道를 해치기에 詩를 쓰지 않았으나 이를 등안 大學의 誠意章을 읽고 느낀 바 있어 至日 아침에 일어나 이 詩를 써서 스스로를 경계했으니 대개 부득이해서, 쓰지 않고는 못 빼겨서 쓴다.」⁸⁹⁾ 고 했음에서 32세 作임을 알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때는 朱子가 延平을 세 번째 배알하고 學問의 기초가 잡히던 시기로 혼히 朱子의 道通詩라고 하는 「觀書有感」을 쓰던 때이기에⁹⁰⁾ 退溪의 이 詩 次韻은 더욱 뜻이 있다 하겠다. 또 이 해는 退溪가 경영하던 陶山書堂이 完成되던 때이기도 하다.⁹¹⁾ 書堂 完成으로 讀書, 教誨의 得意한 날이 시작되려고 했다. 따라서 이듬 해에는 弟子를 데리고 「浴·風·詠」

87) 이 해에 病으로 三辭解職, 「賈舟東歸」하여 家廟에 祭告했음. 退全, 册四, 言行錄, 卷七, 年譜中 124頁下, 乙卯 先生 55세 條.

88) 答南時甫, 丙辰 56세. 「……晦菴書見成七冊, 無窮事業都在其中, 但一味力不能趁, 而光陰不留. 恨不從數十年前做此工夫. 願公以湜爲戒, 每以一恙故, 中年自廢以貽晚晦也……」, 退全, 册一, 卷十四 書 362頁 上右. 且, 册四, 年譜中 丙辰先生 五十六歲 六月條에 「編次朱子書節要成」이라 적었다.

89) 朱全, 册一, 文二, 詩 「頃以多言害道 絶不作詩, 兩日讀大學誠意章有感, 至日之朝起書此以自箴. 蓋不得已而有言云」

90) 朱子從遊延平始末, 錢案, 册三 30~31頁.

91) 退全, 年譜中 庚申 60세 十一月條 「陶山書堂成」

의 시간을 보내면서 쓴 詩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암에 에 꽃 피고, 봄은 무르 녹았는데,
잔잔한 산물 물, 숲속에 새는 울고,
우연히 동관들과 山을 넘어 온다네,
山 앞의 고반대엔 한가로움 흐르고.

花發巖崖春寂寂，鳥鳴瀾樹水潺潺，
偶從山後携童冠，閒到山前看考槃。⁹²⁾

그 때 退溪를 隨行했던 李德弘이 3년 뒤인 甲子年 退溪 64세 때 이 詩를 評하여 「上下가 同流하여 萬物이 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고 했을 때 退溪는 答書에서 「그런 뜻이 조금은 있으나 推崇하는 정도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라고 조심스레 반응을 보인다.⁹³⁾

이로 볼 때 朱子의 「曾點」에서 次韻한 의미가 깊음을 알 만하다. 이는 61세에 쓴 陶山雜詠并記⁹⁴⁾에서 「壁立萬仞하여, 늙은 이가 헌히 월 곳이 아닌 데다가 山中에 물도 없어 樂山樂水하기에 알맞지 않으므로 清涼山을 버리고 이 곳을 택했다」고 했으며, 「그러나 外物에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참된 즐거움이 아니라」는 어떤 사람의 말에 그렇지 않다고 응수한 뒤 그 증거로 「孔子가 論語에서 ‘吾與點也」⁹⁵⁾라고 한 감탄이 何必이면 沂水 위에서 나왔으며, (朱子) 卒歲의 소원이 어찌하여 유독 蘆峯 마루에서 읊조려 졌을까?⁹⁶⁾라고 썼음을 볼 때 退溪의 이 分野 관심이 얼마나 커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七번째의 「次韻李靜存見寄」는 退溪 63세 때 朱子의 有名한 「鵝湖寺次陸子壽」詩에서 次韻한 것이다.⁹⁷⁾ 더군다나 첫 句의 「德義風流夙所欽」은 그대로 한 字도 바꾸지 않고 引用하고 있다.

92) 「步自溪上躋山至書堂, 李福弘, 德弘, 琴拂箇輩從之」, 退全, 册一, 卷三, 詩 112頁 上左.

93) 答李宏仲, 退全, 册二, 卷三十五 書, 甲子 64세, 221頁 上右. 册四, 年譜中 辛酉 61세 三月 「纂節友社」條. 同言行錄, 卷三, 類編 59頁 및 攷證, 卷二, 詩 474頁 上左 等에도 있음.

94) 退全, 册一, 卷三, 詩 100—103頁. 이 記文 끝에 「……嘉靖辛酉日南至山主老病畸人記」로 되어 있음.

95) 論語, 先進 第十一.

96) 朱全, 册一, 文八, 詩 「登蘆峯二首」의 前一首 끝에 「……餘年端可料, 此地欲長休」란 句가 있는데 아마 이것을 가리킨듯.

97) 退全, 册四, 攷證, 卷二, 詩 479頁 上右에서 「案此詩用鵝湖韻」이라 註했음.

八번쩨 「三月三日用晦菴先生一字韻」은 退溪 66세 丙寅년에 朱子의 「三月三日祀事畢因修禊事于靈梵以高閣一長望分韻賦詩得一字」에서 用韻한 것인데 날자도 三月三日 그대로라서 인상적이라 할 만하다. 이 외에도 退溪의 詩에는 朱子의 詩를 模擬, 點化한 것이 많이 있다.⁹⁸⁾

2. 武夷櫂歌 理解

武夷櫂歌란 「武夷山의 벗노래」라는 뜻이다. 朱子가 66세 乙卯 中秋에 쓴 武夷圖序를 참고하여 武夷山과 武夷君이란 神에 읽힌 얘기 몇 이에 대한 朱子의 대도를 알아 보기로 한다.

“武夷君의 이름이 漢나라 때부터 알리지 뇌었으니 乾魚로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 어떤 神인지는 알지 못하겠다. 지금 建寧府 崇安縣 南쪽 二十餘里에 武夷山이란 山이 있는데 옛부터 친해 오길 神 武夷君이 사는 점이라고 한다. 峯巒과 嵩巒이 秀拔·奇偉한데 清溪 아홉 구비가 그 사이로 흘러 나온다. 사람의 발자취가 향지 않은 두 인덕의 깊이지른 절벽엔 往往 疎査가 둘둘 사이에 꽂혀서 배와 棺柩를 잡아 데고 있다. 널 속에는 遺骸가 있으며 그 밖으로는 陶器들이 있는데 아직도 모두 깨이지지 않았다. 아마 前世에 길이 通하지 않고 냇풀도 막혀 트이지 못할 때 夷落民이 살았는데 漢人이 제사 드린 대장이 바로 그 부락민의 君長으로서 역시 세상을 피해 사는 선비였으며 살아시는 무리들이 臣服하며 따랐고 죽어서는 신선이 되었다고 전해 오는 게 아닌가 한다. 지금 山의 어려 봉우리 중에 가장 높고 바른 것을 오히려 大王峯이라 하며 半頂에 小丘가 있으니 예가 곧 武夷君이 거처하던 곳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記錄에 전해 오는 것은 謂妄하여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 考信할 바 못 된다. 때문에 版圖가 있긴 해도 작고 색이 바래서 알아 보기 어려웠다. 지금 冲羽佑人 高君文舉가 다시 고쳐 그렸다. 이 그림은 鄭岱隱顯의 布置가 武夷山의 神秘를 다 나타내었다. 또 (文學가) 隱屏精舍 仁智堂主人에게 序를 쓰도록 하여 옛부터 전해 오는 의혹을 없애도록 했다.”⁹⁹⁾

朱子는 이 序文에서 무이산의 위치와 풍경, 그리고 거기 읽힌 전설을 적은 뒤 옛부터 전해 오는 얘기는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미 무이도가 있긴 하나 (폭이) 좁고 땅가져서 九曲의 승경을 알아 보기 어렵다. 高文舉란 羽人이 새로 그리고 서문 부탁을 하기에 쓴다고 했다. 66세면 朱子의 晚年이요, 학문이 거의 완성된 원숙한 경지라 하겠기에 이런 전설

98) 同註 86) 王翬文 참조.

99) 朱全, 冊十, 文七十六 序, 原文은 안 실음.

을 「詭妄不經」이라고 결론 짓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武夷의 山水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못하지 않은 것이다. 朱子는 이 序文을 쓰기 十二年前 54세 癸卯年 夏四月에 武夷九曲 中 第五曲에다가 武夷精舍를 짓고 거처하니 四方 士友가 많이 찾아왔다고 했으며 小詩 十二篇을 지어 그 實相을 記錄한다고 했다.¹⁰⁰⁾

그리고 一年 뒤 甲辰에는 다시 諸同遊에게 보여 준 武夷櫂歌十首를 지었으니¹⁰¹⁾ 이 十首를 退溪가 어떻게 理解하고 受容했나를 살피는 게 이 글의 主된 内容이다. 먼저 朱子와 退溪의 原詩와 和詩를 감상하고 그 사이의 曲折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한다. 十首는 맨 앞에 序首, 아래로 一曲에서 九曲까지 읊고 있다.

루이산 꽑재기에 신령님이 계시고,
山 아래 찬 들은 구비구비 맑으네.
이 山 깊숙히서 기절한 끗 찾골티니
옛노래 한가로이 두세 소리 들리네.

武夷山上有仙靈，山下寒流曲曲清，
欲識箇中奇絕處，櫂歌閒聽兩三聲。

첫구비 산여울에 남자 들고 배에 올라,
맑은 물 어린 경치 만경봉 완연하네.
무지개 다리 끊긴 뒤 소식만 묘연하다.
바위 솟아 풀 깊은데, 뿐만 내만 들었다.

一曲溪邊上釣船，幔亭峯影蘸晴川，
虹橋一斷無消息，萬壑千巖鎖翠煙。

둘째 구비 옥녀봉은 저렇게도 정정하다.
구구에게 보이려고 물가에 다소곳이 !

100) 朱全, 册二, 文九 武夷精舍雜詠并序에 「武夷之溪東流凡九曲，而第五曲爲最深……即精舍之所以在也。……經始於淳熙癸卯之春，其夏四月既望堂成而始來居之。四方士友來者亦甚衆。莫不嘵其佳勝而恨它屋之未具，不可以久留也……總之爲賦小詩十有二篇以紀其實……」 또 王譜 癸卯 54세 夏四月條에는 李果齊 方子의 年譜를引用, 「正月에 착공하여 夏四月에 완공했다」고 되어 있고, 文集을 引用하여 武夷精舍 雜詠并序를 지었다고 적었으며 이어 「武夷櫂歌十首 甲辰」이라고 기록했다.

101) 朱全, 册二, 文九, 詩 「淳熙甲辰中春精舍閒居，戲作武夷櫂歌十首，呈諸同遊相與一笑」 甲辰은 55세 때임.

도사는 꿈 속에서 낭만을 버리고는
푸른 산 홍에 겨워 몇 겹을 들어간고 ?

二曲亭亭玉女峯， 插花臨水爲誰容，
道人不復陽臺夢， 輿入前山翠幾重。

세째 구비 가학선 마위도 높을시고,
돛대를 내린 지 그 몇 해를 지냈던고 ?
푸른 바다 뽕발 뵐니 그 이치 알만한데,
부질 없는 세상 탓 가엽기 그지 없네.

三曲君看架壑船， 不知停櫂幾何年，
桑田海水今如許， 泡沫風燈敢自憐。

네째 구비 동서로, 마주 보는 셔 바위야 !
바위 틈 꽃 얼굴엔 아침 이순 영롱하네 !
서제 한번 울고 난 뒤 사람 하나 안 보이고,
밝은 달은 골짜기에, 맑은 물은 연못 가득 !

四曲東西兩石巖， 嶺花垂露碧甌蕤，
金雞叫罷無人見， 月滿空山水滿潭。

다섯 구비 둘은 산에 구름만 머물고
하루 종일 숲 속에 뿐인 앙개 자욱한데,
그 숲 속 그 나그네, 아는 이 그 누었고 ?
여기 다자 배노래에 영원을 되새기네.

五曲山高雲氣深， 長時烟雨暗平林，
林間有客無人識， 欸乃聲中萬古心。

여섯 구비 창명 바위 푸른 개울 둘러 흘려,
하루 해가 다하도록 사립짝만 외로우네.
손님 위해 노를 지어 떨이 지는 꽃을 봐도,
여윈 날과 산새 소리에 볼 뜻이 한가롭네.

六曲蒼屏遡碧灣， 茅茨終日掩柴關，
客來倚櫂巒花落， 猿鳥不驚春意闇。

일곱 구비 노를 지어 푸른 개울 거스르며,
온명정사 선장봉을 아쉬워 돌아보네,
어젯 밤 봉우리에 빛 소리 흐란더니

쏟아 지는 물줄기 오싹하기 몇 번인고 ?

七曲移船上碧灘，隱屏仙掌更四看，

却憐昨夜峯頭雨，添得飛泉幾道寒。

여덟 구비 쌓인 안개 바야흐로 겉히는데，

흐름암 바위 아래 물길이 굽이치네。

이 구비 볼 것 없다， 말하자 말아주께。

사람들 아니 오곤 그만 감이 좋다하네。

八曲風烟勢欲開，鼓樓巒下水繁迴，

莫言此處無佳景，自是遊人不上來。

아홉 구비 끝나는 곳 앞들아 확 트여，

이슬 젖은 뺨과 삶이 들판에 가득하네。

어부들 다시금 도원정을 그려서，

별 세상 있는 듯이 찾아 나섰네 !

九曲將窮眼豁然，桑麻雨露見平川，

漁郎更覓桃源路，除是人間別有天。¹⁰²⁾

[5] 어 退溪의 次韻詩 十首를 보자.

설령 스런 山이라서 놀라는 게 아니라，

창주정사 맑은 자취 곰곰히 그려 보네.

이것 땅 끝 꿈에 朱先生 본 깊게 살려.

또이구곡 운을 빌어 다시금 노래하네.

不是仙山訛異靈，滄洲遊跡想餘清，

故能感激前宵夢，一懽賡歌九曲聲。

첫째 구비 말을 더뎌 어선을 찾으니

천주봉은 예대로 흐르는 내 굽어 보네.

한 선비 이 곳에서 경치를 읊상한 뒤，

동경은 다시금 풍연 속에 잠겼네.

我從一曲覓漁船，天柱依然瞰逝川，

一自眞儒吟賞後，同亭無復管風烟。

둘째 구비 푸른 봉은 선아의 화신인가 ?

102) 同註 101)

타고난 아랫다움 절세의 단장 겸해,
무엇하리 다시금 임에게 마치려나?
하늘은 멀어서 겹겹이 구름 깊은데.

二曲仙娥化碧峯，天妍絕世靚脩容，
不應更覬傾城鷹，閻闉雲深一萬重。

세째 구미 높은 절벽 큰 배를 매었구나!
허공중을 날으는데, 이 배가 괴이하네.
냇물을 건너는데 그 무엇에 쓰려고
오랜 세월 부질 없이 간직해 두었는지?

三曲懸崖挿巨船，空飛須此怪當年，
濟川畢竟如何用，萬劫空頑鬼護憐。

네째 구미 선가암엔 맘 깊어 고요한데,
고운 것털 황금 털이 새벽을 알려 주네.
이 가운데 또 다시 풍류가 넘쳐 흘러
양털 웃 걸친 채 달빛 아래 연못 낚시.

四曲仙機靜夜巖，金雞唱曉羽毛斂，
此間更有風流在，披得羊裘釣月潭。

다섯 구미 대은명은, 朱子 계신 무이 정사,
대은도 오히려 숲 속에 숨은 전가?
거문고를 잡고서 달빛 아래 통길 적에,
산 앞의 말같이들, 선생 마음 어이 알까?

當年五曲入山深，大隱還須隱蔽林，
撥把瑤琴彈夜月，山前荷簾肯知心。

여섯 구미 돌아 돌아 벽옥 같아 푸른 물결
신령 자취 이이 하여 구름에 갇혔을까?
낙화 뜬 물결 따라, 깊이 깊이 찾아 오니
이제사 선가에 한가로움 알겠구나!

六曲回還碧玉灣，靈蹤何許但雲關，
落花流水來深處，始覺仙家日月閒。

일곱 구미 노를 저어 또 한 여울 올라 오니
천호암 기이한 모습, 가장 불 만 하구려!

어찌면 유하주를 다시금 얻어 와서
기나히 비신 따라 학의 등에 올라탈꼬?

七曲撐篇又一灘, 天壺奇勝最堪看,

何當喚取流霞酌, 醉挾飛仙鶴背寒.

여덟 구비 운명은 물을 끼고 일리니
나는 듯 노를 써야 멋대로 땀돌아,
고루암 반들이 놓은 天公의 뜻 알겠구나!
遊人을 고무하여 끝까지 오게 하네!

八曲雲屏護水開, 飄然一棹任旋洄,

樓巖可識天公意, 鼓得遊人究竟來.

아홉 구비 山 터지니 드넓기만 하구나!
人家에서 연기 편 제, 긴 대를 굽이 모네,
그대에게 원하노니 예서 둘 끝난다 말게.
묘처 편히 다른 곳에 또 있음 것이네.

九曲山開只駛然, 人烟墟落傍長川,
勸君莫道斯遊極, 妙處猶須別一天. ¹⁰³⁾

朱子가 55세에 쓴 詩韻을 退溪는 47세에 비로소 지었다. 權歌 刊行에 對한 내용은 앞 章에서 대강 言及했기에 이 章에서 權歌에 대한 退溪의 意見를 찾아 내어 살피고자 한다. 退溪가 55세 乙卯年 李剛而에게 보낸 答書에서

“현재 南中에 또 심한 흥년이 들었고 島醜가 來年에 다시 귀찮게 굴 것 같다고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¹⁰⁴⁾ 멀리까지 기억하시고 案歌註를 刊印하여 一本을 보내 주심에 진중하게 읽고 있습니다. 지극히 감사합니다. 懼齋가 이 註를 만들었음을 볼 때¹⁰⁵⁾ 비록 先生(朱子)의 本義를 정확하게 터득 이해했는지는 알

103) 「閒讀武夷志次九曲權歌韻十首」 退全, 册一, 詩 63—64頁 丁未 47세作

104) 島醜란 倭寇를 말하는 것 같다. 湖南方伯이 龜巖에게 十三邑의兵力을 거느리고 倭寇 격퇴를 원조하라는 命을 내렸음을 볼 때 將材까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乙卯夏 倭虜寇湖南 陷城殺守勢甚陸梁, 方伯以先生爲都將, 領十三邑兵往援之. 先生 整軍啓行 紀律嚴明, 行伍整齊, 望之不可犯. 中道聞寇退乃返. 於是人始知先生 兼有將材焉……」, 龜巖集 原集, 卷之二, 年譜 44歲條.

105) 懼齋는 元斗 學者 陳普. 朱子의 權歌가 단순히 山水만 읊은 게 아니고 進道次第의 寓意가 있다고 생각하여 註를 썼다고 한다. 「案懼齋陳氏普謂武夷權歌九曲寓意, 純是一條進道次第 其意固不苟, 不但爲武夷山水也. 遂作註解.」

退全, 册四, 政證 卷四書 518頁 上左, 宋元學案 64卷, 臺灣, 中華書局印行.

수 없으나 (독자의) 趣旨를 啓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설로 없을 수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目前第以南中又至大歎。似聞島齋來年將復作逆云，是爲痛念爾。蒙寄示棹歌註刊印一本，遠記至此 珍重玩誦，極爲感荷。懼齋爲此註 雖未知正得先生本義，亦可以助發趣旨，誠不可無也。^[106]

이 편지에는 위에 引用한 사연 말고도 농암(李賢輔)의 捐館으로 溪山의 즐거움이 쓸쓸해 졌다고도 했으며, 한편 곡식이 그렇게 흥년이 들어 불행이라고도 했음을 볼 때 퇴계의 관심사가 여러 가지임을 알 수 있겠으나 이 글과 직접 연관이 적기에 생략하기로 한다. 필자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退溪의 往復書 속에서 朱子의 武夷櫂歌에 대한 評價는 이 편지가 처음이 아닌가 한다. 退溪의 이런 견해는 櫂歌의 作者인 朱子의 本義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이기에 의의가 크다. 더욱 元의 學者 陳普의 見解를 원곡하게 부정하고 있어 검토할 값어치가 있다고 본다.

또 구재의 견해를 부정하기는 하면서도 櫂歌를 읽을 사람에게 朱子의 本義가 어떻든 간에 進道의 次第로 풀이해 줌으로써 독자가 學問進道에 대한 趣旨를 啓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그런 점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현대비평의 안목으로 보더라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助發趣旨」라는 말이 설득력을 가진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는 다른 견해에도 가치를 인정하려는 태도라고 보면 朱子의 「思無邪」에 대한 견해와도 닮아서 흥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107] 이런 원만한 태도는 그대로 退溪에게 연결되었다고 본다. 이 때가 퇴계 55세였으니까 次韻했을 때 보단 8년 뒤의 일이다. 47세에 次韻했던 第九曲詩에 대해 회의를 품고 탐색을 거듭하다가 새로이 고쳐 짓고 어느 것이 더 타당한가를 奇高峯에게 물기도 했다. 미리 말한다면 退溪가 보는 朱子의 本義는 「景致를 읊은

106) 答李剛而，退全，冊一，卷二十一 書第三書，乙卯 55歲，512頁 上左～下右。

107) 論語，爲政，第二。「子曰 詩三百 一言以蔽之曰 思無邪」의 朱子註。

朱子，詩集傳，魯頌 鴉篇，「思無邪」註。

朱子語類，卷之二十三，論語 五，爲政上，「詩三百章」。朱子는 詩經의 詩를 지운 사람들의心思(情性)가 모두 「無邪」한 것이 아니라 詩經을 읽는 사람들이 詩의 善處를 읽고 善心을 感發하고 詩의 惡處를 보고는 逸志를 懸勵하면 讀詩者の心思가 無邪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詩人의 本意를 알고자 하는 「知詩」와 詩를 읽는 사람이 詩에서 얻고자 하는 「用詩」를 아울러 관심하고 있어 退溪의 태도와 닮은 것이라 본다.

詩」라는 것이다.

退溪 61세¹⁰⁸⁾ 때 奇高峯에게 答한 「四端七情」을 論한 第二書 別紙 맨 끝에 權歌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읽겨 본다.

“混 체가 한가로울 때 武夷志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러 사람이 武夷權歌和作을 많이 남겼으나 先生(朱子)의 의도를 짚어 더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일찌기 別槩所刊行 權歌詩註에 선 九曲詩首尾를 學問入道의 次第로 여기고 있는데 아마도 先生의 本意가 이렇게까지 拘拘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近間에 茂長 卞成溫이란 사람이 일찌기 金河西에게서 배웠다고 합니다. 멀리서 와서 서로 만났더니, 河西가 지은 武夷律詩一篇을 보여 주는데 註意를 그대로 사용했던군요. 公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찌기 權歌에 和答을 했습니다. 지금이 외랑스런 짓이긴 하나 左右께 슬길 수 없어 이제 적어 보내니 訂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中に 第九曲을 和作한 것이 二絕인데 하나는 註意에 따른 것으로 옛날에 지은 것입니다. 그 뒤 (朱子原詩中의) 「다시 찾는다(更覓), 이것 말고(除是)」 등의 語意를 되풀이 생각해 보니 註意와는 다른 것 같아서, 다시 또 한 首를 지었습니다. 이 두 가지 뜻(義)을 써서 和作한 二絕 가운데서 어느 것을 취하고 어느 것을 버려야 할지 잘 모르겠군요. 대개 九曲은 곧 맨 끝까지 유람했으나 특별히 아름다운 경치는 없다는 것 이지만 만약 勝境이 없다는 理由로 유람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흥취와 의미가

108) 위의 第二書 別紙는 年代가 文集 卷十六의 排列로 봐서 모두 己未年に 해당한다. 退溪 59세 때이다. 第一書도 여기 들어 있으나 年譜에는 60세 庚申年十一月에 보면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 봐서 第二書는 이미 61세 辛酉年이 아닌가 하지만 또 退全, 冊一, 卷十七 書 치음에 「答奇明彦 辛酉」로 떠어 후란을 일으킨다.

위의 第二書 別紙 끝 權歌를 論한 내용中에 「近有茂長 卞成溫 嘗學於金河西云遠來相見 示河西所作武夷律詩一篇 亦全用註意……」라는 말이 있다. 이로 봐서 卞成溫이 退溪를 보고 간 뒤에 高峯에게 答한 편지임에 틀림없다. 卞은 언제 退溪를 보고 갔던가? 退全, 冊一, 卷二, 詩 114頁 下左에 「湖南卞成溫秀才汝潤來訪留數日而去贈別五絕」이란 詩가 있고, 이 詩는 辛酉年條에 들어 있다. 이 五絕에 보면 「重逢……六霜」가 있어 6年 전에 한번 相見했던 것이며, 第二絕에 「河西蓬館舊同遊, 故去修文白玉樓, 今日逢君門下士, 話君終夕涕橫流」河西金厚之 汝潤嘗從遊 厚之今年下世」라고 했다. 小註의 「厚之今年下世」로 보아 河河西의 下世年이 退溪 60세 庚申 正月인데 辛酉年條이 五絕을 排列한 것과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辛酉年條에 들어 있는 詩 「步自溪上 蹤山至書堂 李福弘, 德弘, 琴拂箏鼙從之」라는 詩가 年譜에 61세 辛酉 三月 築節友社條에 들어 있어 詩集 辛酉年과 맞는 것으로 봐서 退溪集에 詩排列이 틀림없음을 알 수 있으니, 卞成溫에게 준 五絕도 61세 때가 틀림 없으나 다만 五絕 第二首 小註의 「厚之今年下世」는 이상한 것 같다. 「今年」은 庚申年 티계 60세이기 때문이이다.

모두 없어져서 지금까지 거치면서 보았던 기이한 풍경이 모두 헛탕이 되고 달가에 末句에서 그렇게 읊었던 것입니다. 뜻이 만일에 遊人이 도를지기 漁人처럼 桃源境을 찾아 들어 가도록 험한다면 응당 世外別乾坤의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후의 경계를 찾은 게 되어서 지금 본 경치 그 자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이미 나의 재능을 다 써 버린 뒤에 선 모습이 우뚝하다」는 경지요, 동시에 「百尺竿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곳(九曲)과 八曲에서 읊은 「이곳에 아름다운 경치 없다고 하지 말라. 예로부터 遊人们이 올라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절을 학문에 들어가는 경지로 볼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註家가 八曲에서 「이미 下學에 가깝다」고 했읍니다. 벌써 九曲詩로써 (학문의) 깊고 얕은 차례라고 해 놓고 八曲에 와서야 비로소 「이미 下學에 가깝다」고 한다면 (八曲)以前에 배운 내용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九曲註에 「성현의 경지에 넉넉히 들어 갔지만 처음부터百姓이 日常 들 사용하는 것 아님이 없다. 대체 사람을 버리고 세상과 인연을 끊고서 그 어떤 高遠하여 실행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겠는가?」라고 했읍니다. (註解의) 이 말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로대 「다시 찾는다, 이것 말고(更覓, 除是)」 등의 말과 맞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漁郎이 다시 찾는다」는 구절 아래의 내용을 「우리 학문(儒學)에서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하고 索隱行怪하는 무리들은 이와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저네들(索隱行怪之徒)을 비난하고 우리들을 깨우쳐 주는 것일 따름이라고 볼 수 있어 근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本註에서 「이 경치는 人間에서는 흔하기 얻을 수는 없다」고 한 말 또한 사리에 어긋납니다. 이리석이 어느 쪽을 따라야 할 지 모르겠으니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¹⁰⁹⁾

위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1. 武夷志의 諸人和作이나 別集所刊行 禮歌詩註 및 金河西의 것은 모두 朱子의 本意를 拘拘하게 만들고 있어서,
2. 故히 註意에 의한 詩를 지었다가 改作했다. 그러나 자신이 안 서서 奇明彥에게 물었다.

여기서 注意가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없음이 유감이나 雅頌에 있는 注意를 살펴서 짐작해 보기로 한다.

首. 道의 全體를 말함.

1. 孔·孟이 가고 난 뒤 道統이 오래 끊어졌음을 말함.

109) 答奇明彥 論四端七情 第二書 別紙. 退全, 冊一, 卷十六 書 426頁 上右—427頁 上右. 原文 길이 안 실음.

2. 道를 배운은 色을 멀리함으로부터 시작함. 사람이 이 (好色의) 마음을 끊은 뒤에 道에 들어갈 수 있음.
3. 사람이 世間의 모든 榮辱(에 대한 마음)을 셋어 내어 가슴 속에 남기지 않은 뒤에야 俗累가 끊겨서 험차게 道에 들어갈 수 있다. 佛家의 (人生의) 물거품이요 바람 앞의 등불처럼 부질 없는 것이란 말이 正道는 아니지만 利慾에 끌리는 마음을 셋는데 (조금의) 도움은 된다.
4. (道에) 힘차게 달려 가서 얻는 게 있으니, (성인의) 높은 경지를 우러러 보고 단단한 경지를 뽐이 본다.
5. 만고에 변함 없는 성현의 심사를 알게 된다.
6. 靜하고 安할 수 있어 生意가 자유자재로 발동하며, 天地가 제 자리를 잡고 만물을 기를 수 있다.
7. 上達의 경지가 한번도 下學의 바탕에서 떠나지 않는다.
8. 노력 안하는 것을 걱정할 것이지 노력만 하면 성공하지 않을 것이 없다.
9. 넓게 트여서 막힘이 없는 경지를 말함.

首. 言道之全體.

1. 言孔孟去後，道統久絕.
2. 言學道由違色而入，人能屏絕此心 然後可以入道.
3. 人於世間一切榮辱，皆能蕪滌，不以介其脣中 然後俗累皆絕，沛然入道. 佛家泡沫風燈之說，雖非正道，亦可以滌人利慾之心.
4. 言穀穀有得 仰高鑑堅.
5. 言識得萬古聖賢心事.
6. 言能靜能安，生意流行，天地可位，萬物可育.
7. 言上達未嘗離乎下學.
8. 言人患不用力，一日用力 無不能至者.
9. 言豁然貫通，無所障礙.¹¹⁰⁾

하나 같이 學問入道의 次第로 풀이하고 있어 陳註를 연상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이런 見解에 따라 退溪가 지은 것이 「舊所作」이다. 살펴 보기로 하자.

아홉 구비 찾았을 때 문득 아득하여라.
참된 근원 어디엔가, 이 냇물이 그곳이지.
비 내리고 이슬 젖은 상마발을 버리고서

110) 雅頌，二冊，八卷，李朝 正祖가 23년(1799) 朱子의 詩文을 뽑아 편집한 책。武夷櫂歌十首에 불인 註解임。

다시금 산 속에서 또 한 경치 찾을건가?

九曲來時各惘然，眞源何許只斯川，
寧須雨露桑麻外，更問山中一線天。¹¹¹⁾

아직 武夷志와 權歌詩注를 읽지 못해 자신이 없으나 위의 詩를 注意에 따라 지었다는 退溪의 말로 그 注意가 무엇인가를 대강 알 수 있을 것 같다. 곧 「眞源이 바로 이 냇물이 아닌가? 桑麻外에 一線天을 꼭 찾아야 할건가?」 한 것이라 보면 어떨까? 이렇게 되면 人間世上 말고 別天地를 찾지 않게 되어 「人生日用之常」을 중시하는 儒家와 가깝게 되고 「索隱行怪之徒」의 玄虛한 謠妄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九曲이 究竟處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更覓・除是」等의 詩語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다시 말하면,

漁郎更覓桃源路，除是人間別有天。

兩句의 해석을

어랑이 다시 도원로를 찾으니
人間世上 말고 別天地가 또 있구나!

라고 풀이한 게 아닐까 한다.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읽혔던 것 같다. 漁郎이 道家에서 말하는 別天地인 桃源境을 찾아 가듯이, 遊人에게도 그곳을 찾도록 권해서는 안 된다는 게 퇴계의 해석이 아닐까?

요약 정리하면 것을 계속 풀이해 보자.

3. 九曲이 평범하여 우람이 끝났다고 하면 一曲에서 八曲까지 본 것이 헛 것이 되어, 遊人에게 漁郎처럼 別天地를 찾아 究竟處로 삼도록 하는 것은 論語에서 颜回가 孔子의 위대함을 흡모하여 재주겠다 하고 나니 우뚝한 그 무엇이 선듯한 것을 느끼는 경지, 또 佛家의 百尺竿頭에서 進一步하는 경지에다 비유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 가면 「十方世界가 바로 全身」인 경지. 이런 두 경지가 別天地에 비길 수 있다 하겠다. 이렇게라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면 이곳(九曲)과 八曲의 「莫言此地無佳景，自是遊人不上來」와 합쳐서 學問造詣處로 봐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退溪의 조건부 同意에 지나지 않는다.

4. 그러나 註家가 八曲에서 下學에 接近했다고 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유는

111) 答金成甫條, 「初一絕云云」註. 退全, 冊四, 攷證, 卷四 書 518頁 上左, 癸亥 63세.

九曲에서 深淺次第를 따지는데 八曲에서 비로소 下學이라면 一曲~七曲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내용이다.

5. 또 九曲註에서 「성현의 경지에 넉넉히 들어 갔으니 高遠難行한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 말 자체는 매우 아름다우나 「다시 찾는다, 이것 말고」 등과 어긋난다.
6. 漁郎이 다시 別天地 찾는 행위는 吾學(儒學, 聖學, 道學)에서 할 일이 아니고 素隱行怪之徒나 하는 일이라 한다면 근사할 것 같으나 本註에 이런 경지를 속세에선 잘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니 역시 전후 모순된다.

라고 하여 해석상의 고충을 말했다. 어쨌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本意는 景物을 모례한 것이지만(作者편에서 보면), 讀者 편에서 볼 때는 좀 拘拘하더라도 功用을十分 살릴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助發趣旨」라는 것이다. 이는 바로 詩를 여러 각도에서 보려고 하는 원만한 마음에서 나온 태도라고 본다. 현대비평에서 말하는 「誤謬」理論에 비추어 볼 때 作者의 意圖를 미리 따지는 게 금기 사항으로 되어 있어 退溪의 本意 따지는 행위가 우스운 것 같으나 이 점이 바로 道學家의 批評態度라고 보아 무방할 것 같다. 「作詩, 知詩, 用詩」 세 가지 방면을 고루 관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理一分殊」에서 「分殊」를 중시하는 태도는 이런 데서도 나타난다고 본다. 退溪의 訂評 要求에 奇明彦이 答한 別紙가 있으나 여기서는 退溪가 63세 壬亥年에 金成甫에게 答한 내용을 살펴보자 한다.

“濯歌九曲一絕四句의 意味에 대해서는 저의 처음 전해가 註意와 같았기에 처음一絕에서 그렇게 들었읍니다.¹¹²⁾ 그 뒤 一絕을 이렇게 고쳐 지은 것은 일부러 새로운 의미를 파내어 다른 전해를 주장하고자 함은 아니었읍니다. 다만 本詩의 의미와 「除是·別有」 내 글자를 반복하여 상세히 음미한 뒤 당연히 이와 같이 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에 처음에는 역시 꼭 맞는 해석이라고 감히 자신할 수 없이 일찍이 奇君 明彦에게 보내서 보게 했읍니다. 그랬더니 明彦 역시 後一絕을 옳다고 하지 않더군요! 생각컨대 그의 뜻이 정히 보내 주신 뜻과 같았읍니다. 가르쳐 주신 本註의 意味가 실제로 이와 같으나 다만 그와 같이 본다면 「平川을 덮었다」는 句以上(곧 朱子의 第九曲詩 前二句인 「九曲將窮眼豁然, 桑麻雨露靄平川」以上)은 「내가 무궁한 맛을 自得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아래 二句인 「漁郎이 다시 桃源別有天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만약 前後 四句를 합친 一首 전체의 의미를 「내가 自得한 경지」로 본다면 오히려 「仙路를 다시 찾는데 人間을 제외하고 別天地

112) 同註 111)

가 있다」는 말이 있게 되니 不當합니다. (이와는 달리) 만일 이 二句(漁郎更覓桃源路, 除是人間別有天)을 「異端老佛의 무리들이 일상적인 것을 삶아하고 가까운 곳(자신이 봄 담고 있는 곳)을 미워한 나머지 공허하고 아득한 곳에서 道를 찾으려 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말에는 마땅히 꾸짖고 나무라서 물러치려는 의도가 들어 있을 것이요, 이처럼 한 가닥 好事로 여겨서 그리워하고 충상하며 부리워하고 아끼는 뜻이 있는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璞珠詩格 속에는 이 詩의 末句 아래에 註를 달았는데 「先生께서 일찌기 이 句 때문에 비방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있었는지는 달리 알아 볼 방법이 없음니다만 정말 있었다면 윗쪽 兩端의 의미로 해아려 보건데, 두 경우가 다 비방 들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上端의 의미(自得處로 보는 解釋)로 살펴보더라도 이른 바 「別有天」이란 것도 「桑麻雨露」 가운데 있는 것이 되어 傲物輕世하는 의미가 없으니 무슨 비방을 들겠습니까?

또 下端의 의미(異端老佛之徒의 行爲)로 본다 해도 別有天이란 칼은 곧 異端者流를 가리키는 것이지 先生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텐데 무엇 때문에 비방을 들을 것입니까? 무릇 九曲十絕은 차운(朱子가 著한 당시)에는 결코 「學問次第」라는 의미가 없었는데 註를 단 사람이 천착부회하고 바다마다 억지로 끌어다 끌어준 것이지, 先生의 本意는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제가 일찌기 그(註者の의) 잘못을 면명했을 때 奇明彥도 역시 同意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第九曲詩이 있어서만은 제가 뒤에 고쳐 지은 전해와 달랐습니다. 두언고 하니 제가 八曲의 「自是遊人不上來」一句 및 이 一絕(九曲)은 본디 景致을 묘사한 말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는 托興寓意한 곳이 없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明彥 같이 충분한 석별 능력을 가지고 억지로 끌어다 끌어준 사람들의 전해에 혼들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제 뜻인 先生의 이 一絕(第九曲)은 본래 景物 묘사를 為해 設定한 것인 뿐 九曲一境은 山이 끝나고 내가 절편히 호를 뿐이기에 예부터 이 곳에 특별히 아름다운 경치가 없어서 거의 遊興이 잡자기 끝나는 뜻이기에 詩의 앞 二句에선 본 것을 直叙했으며 末二句의 의미는 「만일 이 境界까지 와서 경치 좋은 곳은 이제 끝났다고 하지 말고 다시 真源妙處를 구해서 도착한다면 凡常한 人間世上을 벗어나서 별도의 好乾坤이 있게 된다」고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諸賢의 和詩를 보니까 이런 의미로 和作한 것이 역시 많습니다.

方岳, 張憲, 楊士宗, 顧應祥 같은 사람들의 和作 모두가 「景致가 다할 곳」이기에 별도로 하나의 仙境을 찾아서 究竟處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先生의 처음 의도(十首를 지을 때의)는 다만 이와 같았을 따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讀者들이 (朱子의 樞歌詩를) 謔詠玩味하는 中에서 超邁한 의사와 舍蓄된 福音한 뜻(義)을 餘分으로 얻는다면 역시 道에 나아가는 사람의 정도가 깊고 알고 높고 낮음파, 누르기도 하고 피밀이 올리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고 물리

서기도 하는(進道의 方法의) 意味로도 옮겨서(移)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曾子이 「아첨하지도 교만하지도 않는 것으로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¹¹³⁾는 생각이나 曾子의 「일에 따라 정밀히 살펴서 험세 살해한다」¹¹⁴⁾는 것과 颜子가 「博約工夫에 從事하여서 그만 두고자 하지만 그럴 수 없을 때」¹¹⁵⁾에 모두가 「시야가 넓게 트이어 절편한 냇물이 보인다(眼豁平川)」는 것으로써 더 올라갈 수 없는 종점으로 생각하다가, (孔子의) 「가난하면서도 생활에서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찾고, 가볍으면서도 예절지키기를 좋아하는 경지」¹¹⁶⁾(가 더 좋다는 가로침을)를 듣고, 「一貫之道의 宗旨」¹¹⁷⁾를 들은 것」 및 「(자신의) 선 모습이 우뚝한 것」¹¹⁸⁾을 보는 것은 모두가 別有天에 도달한 의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는 마땅히 古人이 (詩經의) 詩를 引用할 때 (어느 特定한) 한 章을 끊어서 필요한 의의를 취하는 例와 같이 생각하고서 이처럼(子貢, 曾子, 颜淵) 보는 것이지만 詩의 本意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물으신 바 「신 것(顏子 자신의)이 우뚝한 것 같다」고 하 말은 自明한 것입니다.¹¹⁹⁾

위 答書는 金成甫가 「所立卓爾」와 관련하여 禮歌九曲을 해석하여 한 때 대한 퇴계의 辨明이다. 곧 古인이 引詩할 때 斷章取義할 수는 있으나 그 引用된 詩全體의 本意는 단장취의했을 때의 「義」와는 다른 것이 마치 朱子의 禮歌十首를 景物描寫로 보지 않고 學問入道次第로 보려는 태도와 같은 음을 강조한 것이다. 윗 번역문을 간추려 본다.

- 改作한 것은 「新異」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朱子詩의 本意를 따르다가 보니 부득이했다. 그러나 奇君도 同意하지 않았다.
- 本註의 意味를 강조한 金成甫의 친해를 따른다면 朱子의 第九曲詩 前二句를 「吾所自得無窮之趣」로 볼 때와 四句 全體를 그렇게 와 줄 경우에도 「更覓・除

113) 論語, 學而, 「子貢曰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 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114) 論語, 里仁, 「子曰 參乎, 吾道一以貫之. 曾子曰唯. 一註……曾子於其用處 蓋已隨事情察而力行之……, 一子出 門人問曰 何謂也,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115) 論語, 子罕, 「顏淵喟然歎曰 仰之彌高, 鑽之彌堅 謂之在前, 忽焉在後, 夫子循循然, 先誘人 博我以文, 約我以禮, 欲罷不能 既竭吾才 如有所立 卓爾, 雖欲從之 未由也已.」

116) 同註 113)

117) 同註 114)

118) 同註 115)

119) 答金成甫 德鵠, 美亥 63년, 退全, 册一, 卷十三 書 346 上右~348 上右, 文多不錄.

是」한 말이 또한 걸린다. 末二句를 異端의 世界로 보려 해도 朱子가 품묘하는 의미를 詩에 넣었으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3. 聯珠詩格에는 이 詩 末二句 아래에 註를 넣았는데 이 句로 朱子가 次 상의 비난을 들었다 하나, 吾儒觀點이나 異端觀點 이느 것으로 봐도 비난 말을 이유가 없다.
4. 九曲十絕은 본디 學問次第意思가 없었는데 註家들이 천착부회하여 本意를 채곡시켰다. 博識한 奇明彥마저도 註家에게 이끌렸다. 本來 朱子 本意는 「景物을 노래한 것」으로 九曲까지 와 보니 너무 혀망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어 다른 또한 곳을 보았으면 하는 뜻을 노래한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이 의미로 和作을 많이 했다.
5. 그러나 讀者들은 餘分으로 道學에 들어가는 門檻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아니거나 斷章取義의例外로 볼 것이다. 그러나 朱子의 本義를 정확히理解하진 못했다 해도 독자로서는 충분한 공포가 되니 무방하다는 것이다.

위에서 우리는 退溪를 주로 하여 河西, 高峯이 브는 朱子 罷歌詩의 本意가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를 살펴 보았다. 退溪는 朱詩의 本意가 「本只爲景物而設」이라고 하면서도 「助發趣旨」의 餘分의 効果도 認可하고 있다. 前者は 作者作詩時의 意圖를 밝히는 것이요, 後者は 讀者讀詩時의 功用을 評價한 것이다.

곧 독자의 讀詩 如何에 따라 여러 가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니 朱子의 想無邪 뜻이와 비슷하다. 이는 孔孟程朱의 學問이 中原에서마저 끊어졌다고 보는 퇴계이기애¹²⁰⁾, 元의 陳普의 注意를 더판한 것이 아닌가 한다. 退溪에 따르면 河西는 「全用注意」했고 高峯은 「不能不爲牽合之說所動而然」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朱子의 本意와는 멀다고 보는 것이다. 47세에 和作하고 55세에 李剛而에게 讀詩者の 입장에서 陳註의 가치도 인정했던 것이다. 61세 때 卞成溫이 가지고 온 河西의 「武夷律詩一篇」을 열어 보고 자기가 이전에 지은 第九曲詩 和作二絕을 高峯에 取舍選擇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63세 때는 더욱 詩句의 一字一語까지 세심히 판찰하면서 朱詩의 本意를 밝히고자 했다.¹²¹⁾ 그 뒤 武夷圖에 대한 관심까지 학치면 장장 20餘年的 오랜 동안이다.

120) 抽稿, 李退溪文學批評小敘.

121) 退溪는 뭇글씨를 쓸 때나 絶句詩 한 首를 지을 때도 늘 朱子의 規範을 따랐다. 「先生寫字作詩亦遵晦菴規範。雖偶書一字莫不整頓點劃，故字體方正端重。雖偶吟一絕，一句一字必精思更定，不輕示人（艮錄）。」退全，冊四，言行錄 103頁 上左。

집요하지 않다 할 수 없다. 武夷圖를 通해서 退溪가 朱子의 武夷山 風流에 관해 어떻게 관심했던가를 살피기로 한다. 이 관심은 李仲久¹²²⁾와 왕복한 서신에서 볼 수 있다. 退溪 64세 甲子年에 李仲久에 보낸 편지에 보면 仲久가 퇴계에게 武夷圖의 題跋을 써 달라고 부탁한데 대하여 좀 더 두고 보자고 했다.

“年前에 주신 편지 받고도 오래도록 답을 못했읍니다. 새 해 새 봄 元旦에 정사 있으시길 뵙습니다. ……武夷圖는 精緻하여 즐길 만하지만 題跋은 쓰지 못했으니 아직 後日을 기다려 봅시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은 역시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바」를 이기는 일인데 公께선 이찌 회피할도 없이 다시 전합니까? …”

年前得惠書, 久矣未報. 默歲發春, 神相履端之慶, 遙深嚮風萬萬. ……武夷圖精備可玩, 尚未題跋, 姑留俟後. 但如此事亦犯韜晦之戒, 公何不避而更勸人耶?¹²³⁾

라고 하여 李仲久의 요청을 미루는 사연이 적혀 있다. 위 答書 바로 아래에 실린 「答李仲久」에는 樂歌는 每曲마다 부탁대로 썼으나 跋語는 아직 쓰기를 망서리고 있는 내용이며, 退溪가 이 그림을 좋아한다는 말을 崔子粹로부터 듣고 李仲久가 다시 좋게 그려 보내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前月中에兒子가 서울서 돌아올 때 正月廿五日字 편지와 別紙에서 물으신 것을 받고 여러 번 읽었습니다. ……即日 봄이 늦었으나, 남은 축의 오히려 차갑군요. ……武夷圖는 가르침대로 樂歌를 每曲마다 써 넣었읍니다만 跋語는 너무 어지럽혀 부탁의 뜻을 거듭 어길까 두렵습니다. 또 저의 보잘 것 없는 뜻을 (그림에) 부처게 된 것을 다행스레 여겨서 거절할 줄 몰랐으니 어려비친 저의 소행이 매우 가소롭군요. 또 한편으론 이 跋文 때문에 (이 그림을) 남들에게 보여 주기 어렵다고 한다면 끝내는 이름 난 곳의 절묘한 자취를 책고려 속에 감두고 하여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될까요 두렵습니다. 崔子粹에 의해 제가 이 그림을 무척이나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謩工에게 시켜 베도로 一本을 모사하여 (베껴서) 서로 나누어 보자고 하신 바에 대해서는 다행한 마음 무어다 말씀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일이 잘贯彻하신 대로 쉽게 이루어 질는지요? 과연 그렇게만 된다면 두터운 好意 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

前月中 兒子回自京 得接正月廿五日 尋惠報誠兼別紙所詢, 三復懼然……即日春晚餘寒尙峭……武夷圖依所教書樂歌於每曲, 而跋語深恐厚濶, 重違謬囁, 且以寓見

122) 이름은 湛, 字가 仲久, 號는 靜存, 龍仁人. 居京 正德 庚午(1510)生. 退全, 册四, 陶山及門諸賢錄 卷之一 319頁 下左.

123) 答李仲久, 甲子 64세, 退全, 册一, 卷十一 書 303頁 上右.

微意爲幸，冒不知避，可笑狂癡之甚也。又恐因此跋有難以示人者，則遂使名區妙跡沈晦於篋藏而世不得見也。至因崔子粹報白知滉愛賞此畫，許欲倩工別摹一本以相投寄。此出於料外萬萬之幸也。第未知此事果可易就如所喻否？果爾則厚意何可勝耶？……¹²⁴⁾

윗 글에서 「春晚」이란 말로 보아 늦봄에 보낸答書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跋文에는 「嘉靖甲子二月初吉」로 적었으니 위의 편지 보내기 전에跋文을 쓴 것이 아닌가 한다. 당시 퇴계의 이런 생활은 京鄉各地에 곧장 전해져서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跋文을 읽어 보자.

“三十六洞天¹²⁵⁾이 없다면 그만이겠으나 있다면 武夷가 의당 第一이기에 그 가운데는 옛날에 靈異한 자취가 많다. 하늘이 우리 朱子를 태어나게 하고도 이 세상에 뜻 있는 일을 할 수 없어 하여 끝내 경륜포부를 기두어 들이고는 大隱屏 아래에 놀더니 살면서 灵仙窟宅을 鄭魯道義之鄉으로 변화시켰으니 하늘의 뜻은 실로 알 수 없을이 있구나！(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 한 때의 불행이지만 어찌 이 山(武夷)의 행복이 아니겠으며 百世 斯文의 큰 행복이 아니겠는가？ 세상에는 진해 오는 武夷圖가 많다. 내가 옛날 서울에 있을 때 數本을 구하여 名畫工에게 시켜서 배껴 왔었다. 그러나 元本이 疏略하여 傳寫한 것도 未盡하더니, 吾友 李君仲久가 근래에 一本을 부쳐 주었다. 雲烟이 滿目하고 精妙한 筆致가 구석구석까지 스며 들이 깃질에는 欧歌 소리가 활활히 들리는 듯하다. 아쉽기는 나와 나의 빚이 그 때(朱子當時)에 태어나서 幕亭峯 아래에서 배를 사 가지고 行門塢 앞에 노를 멀추고는 仁智堂에 올라 날마다(朱先生을) 모시고 講道를 듣는 여기에 물리 나와 여러 門人们과 더불어 隱求齋, 觀善齋 사이를 오가며 느끼고 詩 읊고자 하는 뜻을 만에 하나도 이루지 못했음이다. 李君이 나에게 每曲 위에 欧歌를 써 달라기에 써 주고 난 뒤 卷末에 느낌을 적어 돌려 보낸다. 嘉靖甲子 二月 初吉이 真城 李湜우 삼가 跋한다.

三十六洞天無則已，有則武夷當爲之第一，故其中古多靈異之跡。天生我朱子不得有爲於天下。卒至卷懷棲遜於大隱屏下，使夫靈仙窟宅之地變而爲鄒魯道義之鄉，天意固有所未可知也。而彼一時天下之不幸，豈不爲茲山之幸也耶？又豈不爲百世斯文之大幸也耶？世傳武夷圖多矣。余昔在京師，求得數本，倩名畫摹來。由其元本跋略傳亦未盡。吾友李君仲久近寄一本來，滿目雲烟，精妙曲盡，耳邊恍若聞歐歌矣。噫吾與吾友獨不得同其時，買舟輞亭峯下，輶棹於石門塢前，獲躋仁智堂，日侍

124) 同註 123) 下。

125) 武夷山은 第十六洞天에 속하는 데 이름은 「昇眞玄化之天」임。退全, 册四, 改證 卷七 跋 582頁 上。

講道之餘，退而與諸門人詠歌局旋於隱求·觀善之間，以庶幾萬一也。李君要余書懽歌於逐曲之上。旣書因謙所感於卷末而歸之。嘉靖甲子二月初吉，眞城李滉謹跋。¹²⁶⁾

甲子年은 퇴계 64세 때이다. 이 뒤에도 甲子年 踏青日에 金殿의帖에跋한 글에도 朱子 平生의 講道棲息하면 내력이 昭詳하게 밝혀져 있다. “朱子가 처음 「建寧府 崇安縣 五夫里 屏山之下, 潭溪之上」에 居한 뒤 41세에 「建陽蘆峯之顚, 雲谷之中」에 「晦菴」을 지었으니 閩地方이었다. 50세에 南康軍에 부임하여 自鹿洞書院을 興建하고 3년 뒤 임기 만료로 임지를 떠났다. 이 곳은 江東이기에 閩中과 멀었다. 54세에 武夷精舍를 짓고 62세에 漳州로부터 돌아 와 建陽 同山橋에 考亭을 짓고 다시 옮겨 竹林精舍를 지어 九年間 거처하다가 71세로 易簷했다”고¹²⁷⁾ 하여 朱子의 棲息에 관심을 보였다. 이는 陶山書堂이 준공된 뒤의 일이라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중요한 生活의一面이 아닐까 한다. 위의 두 跋文에서 우리는 退溪가 武夷山脈 가 보진 못했지만 그 끗가 본 안타까움을 武夷圖로 달래고 懽歌十首를 음상하고 和作도 하면서 朱子가 靈仙窟宅의 땅을 鄭魯道義의 마을로 바꾸어 준데 대한 흡모의 정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또 퇴계는 서울에 있을 때 武夷圖를 구해 왔으나 疎略하여 볼 품 없더니 李仲久가 보낸 一本이 매우 훌륭하여 懽歌 소리가 귓전에 황홀한 것 같다고 했다. 이로 볼 때 퇴계가 武夷山에서 精舍를 짓고 講道했던 朱子의 風範을 사모하여 마치 않았음을 알 수 있겠다.

앞의 「答李仲久」에서도 武夷圖를 따로 그려서 보내 주겠다는데 대해 기뻐하는 뜻이 역력히 나타났으니 그 정도가 얼마나 대단했나를 알 수 있다. 이듬 해 乙丑年 65세에 李仲久에게 준 答書에서 보내 준 무이도에 아래와 같이 그 고마운 뜻을 전했다.

“武夷圖를 아직껏 留意했다가 그린 뒤, 精絕히 級구까지 해서 보내 주셨군요. 洞府의 烟霞와 大隱屏의 遺蹟들을入手하여 눈을 비추니 매양 펴 볼 때마다 귓가에서 懽歌聲을 듣는 듯합니다. 그대의 치극을 好翫에 감사하면서 마음에 깊히 시기겠습니다.”

武夷圖. 留意畫成 裝幘精絕 珍重寄來, 洞府烟霞 大隱遺跡,入手照眼,每一披玩,耳邊如聞懽歌之聲矣. 感慕至意 當默會也.¹²⁸⁾

126) 李仲久家藏武夷九曲圖跋, 退全, 册二, 卷四十三 跋 382頁.

127) 同註 126), 跋金景巖幾所求七君子贊及箴銘朱文公棲息講道處帖.

128) 答李仲久, 乙丑 65岁. 退全, 册一, 卷十一 書 315頁 上右.

이러한 退溪를 中心으로 한 朱子의 生活欽佩는 우리 나라 讀書人們에게至大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脱계 자신이 陶山書堂을 지어 講學棲息하면서 陶山十二曲을 지은 것도 이와 관계가 있을 것이며 二重의 영향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栗谷의 高山九曲歌도例外가 아닐 것이다.¹²⁹⁾ 以上 言及해 온 것, 朱子詩에 대한 관심과 受容, 權歌에 대한 理解 등을 가지고韓國文學批評史上의 地位를 규정해 보기로 한다. 韓國文學批評史 전체가파악되지 않은 상태라서 다소 억지가 개입되더라도 양해 있기 바란다.

3. 韓國文學批評史上의 位置

여기서 位置를 규정하는 것은 앞에서 양해를 구한 바 있듯이 전혀 나의管見에 속한다. 私見을 정리해 본다.

高麗時代 文學批評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天才批評」, 「個人批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¹³⁰⁾ 이는 李奎報의 「氣不可學得」¹³¹⁾에서 잘 나타난다. 詩에서 가장 주된 것은 「意」요 「意」는 또 「氣」가 주이다. 때문에 氣의 優劣에 따라 意를 우선하느냐? 丹青을 우선 하느냐? 가 결정된다. 李奎報는 氣가 拙劣한 사람은 意를 뒤로 미룬다고 했다. 따라서 겉치레만 번지르르한 것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 이는 中國 竹林七賢中의 稩康의 「神仙非積學所得」¹³²⁾의 견해나, 더 올라가 曹丕의 「雖在父兄 不能以移子弟」¹³³⁾ 등의 견해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보면 内質을重要視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氣라고 하는 것은 우선 「動」을 연상시키기에, 内面 心性의 靜態的인 것이 아니고 心의 作用이 外物을 대상으로 「構思」, 「設意」하는 쪽이라 하겠다. 따라서 心性存養의 노력이 결여되고 外物에 至대한 관심을 쓸게 된다. 이렇게만 되면 外物의 理 곧 「物理」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이 物理를 어떻게 分析하고 設意 構思하여

129) 栗谷 四十二세(宣祖十年, 1577)에 海州로 退去 隱屏精舍를 짓고 이듬해 43세(1578)에 高山九曲歌를 지음.

130) 抽稿, 「其詩不甚高」小序. 白江徐首生博士還甲紀念論叢. 韓國詩歌研究 萍雪出版社 1981. 7. 15.

131) 論詩中微旨略言. 東國李相國集 卷二十二 雜文,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影印本. 檄紀 四二九一年二月二十日 發行.

132) 「……以爲神仙稟之自然, 非積學所得, 至於導養得理, 則安期·彭祖之倫可及, 乃著養生論」. 晉書 稩康傳, 鼎文書局, 臺北, 中華民國 六十九年 初版.

133) 魏文帝, 典論 論文一首, 「……文以氣爲主, 氣之清濁有體 不可力強而致 譬諸音樂 曲度雖均 節奏同檢 至於引氣不齊 巧拙有素 雖在父兄 不能以移子弟……」. 文選, 卷五十二, 臺北, 藝文印書館, 中華民國 六十五年 十月 八版.

作品을 만드는가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物理의 意味를 찾고 나름대로 찾아 낸 意味를 잘 「設, 構」하는 사람이 「氣優」한 사람이란 생각이다. 말하자면 「天才의 氣」 곧 「才氣」라 할 수 있겠다. 이 才氣에만 모든 가치를 주게 되면 「放氣」가 되어 극단으로 흐를 경우 匠人의 차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氣崇尚의 풍조가 中國魏晉南北朝 時代의 思潮와 닮은 것이다.¹³⁴⁾ 人心의 이런 作用은 「向外用心」이기에 心의 存養省察에 해로울지언정 도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中國宋代 道學家의 주장이다.¹³⁵⁾ 宋代 道學이 高麗末에 들어 오면서 우리 나라도 차차 道學에 길이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 그 理論을 우리의 生活, 우리의 文學에 적용하기 시작한다. 時代를 고려 李齊賢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으나 道學을 云謂하기엔 이론 것 같다. 李朝로 들어 오면서 氣崇尚의 思潮가 사라지고 차차 「理」를 강조하기 시작한다.¹³⁶⁾

물론 여기서 말하는 理는 더 깊이 살펴 봐야겠지만 고려에 잘 나타나지 않던 「理」字가 李朝에서는 詩文을 論하는 자리에 등장한다는 것부터가 종대한 변화의 조짐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李朝와 高麗의 文學批評의 特色을 評語, 風格語로서도 잘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¹³⁷⁾ 고려 때는 「意・氣・風・骨」 등에 관심을 보여 評語도 따라서 그 쪽으로 치우쳤고 李朝는 道學의 영향으로 「平, 易, 淡, 蕭散, 潛酒, 枯淡」 등의 評語가支配하고 있었음에서도 잘 드러난다.¹³⁸⁾ 이런 고려와 이조의 차이는 우리 先人們이 「心」을 어떻게 作用시켰는가의 차이라고 보겠다. 고려는 外物의 理致, 곧 物理에 주로 관심하기에, 우리의 心이 向外하기에 「向外心作用」이라 볼 수 있으니 心作用의 「離心力」 쪽이라고 보겠다. 「物理를 設意」하는 氣優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外物의 現象에 힘(氣)차게 접착한다는 뜻이 되겠으며, 이조는 도학의 영향으로 心工夫에 중점을 두게 된다. 따라서 向內를 강조하는 「爲己之學」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人間의 心性은 日用事物과 복잡다단한 교섭에서 다양하게 변화하기에 外物이 다른

134) 卞宗三, 才性與玄理, 臺灣學生書局印行, 中華民國六十七年十月修訂四版(臺再版). 卞氏는 이 册에서 魏晉思想을 다루고 있는데 骨子가 才性과 玄理라고 보고 才性은 宋明理學에서 보면 氣質之性이라고 규정했음.

135) 抽稿, 宋代評語小敍—朱子의 例를 中心으로—, 中國語文學 第三輯, 墨南中國語文學會, 1981.10.

136) 抽稿, 傭齋評論小敍.

137) 抽稿, 李仁老評論研究, 白雲文學研究, 崔滋評論研究 等 參考.

138) 抽稿, 論冲淡蕭散, 安東文化, 創刊號, 1980.12.

각도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外物이 玩弄의 對象이 아니라 心性의 存養에 더할 수 없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이런 작성에서 李朝道學家들의 詩에는 「觀物」이란 題目이 빽이 붙게 되게 아닌가 한다.¹³⁹⁾

다만 外物을 보되 고려 詩人們처럼 物을 玩弄하다가 「心의 主宰力」을 상실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는 태도라고 하겠다.¹⁴⁰⁾ 「心의 主宰」가 「敬」이기에 敬을 강조하게 된다. 心은 身의 主宰요 敬은 心의 主宰라고 한다. 따라서 外物은 모두 心의 主宰下에 놓여야 된다고 보는 것이다. 程朱系統에서는 이래서 敬의 상태를 유지하는 「居敬」을 중시한다. 敬은 心의 動靜을 관통하기에 「敬貫動靜」이라고 한다. 居敬에서 理를 탐구하기에 「居敬窮理」라고 한다.

따라서 居敬, 곧 心을 收斂해야 한다. 곧 「收放心, 求放心」해야 한다. 「才氣放肆」의 氣慢는 잘 되면 좋으나 못되면 더 나쁘기에 언제나 氣의 作用을 잘 살펴야 한다. 그래서 心이 未發(性, 體, 靜)일 때 滋養, 存養하고 已發(情, 用, 動)일 때 察識, 省察해야 한다. 「未發, 已發」이란 中庸에 나오는 말인데 前者를 性, 後者를 情으로 갈라서 본다.

性이란 것은 天理가 人心에 담겨 있는 것이기에 人心이 動할 때는 動하는 心이 性에 合致되는가를 항상 살피고 合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 살피고 노력해야 하는가? 사람마다 形氣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形氣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性이 실현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을 「本然之性, 天地之性」, 뒤를 「氣質之性」이라고 한다. 本然之性의 실현은 善 그 자체이지만 氣質之性의 실현에는 善도 되고 惡도 될 수 있다고 보기에, 氣質之性의 氣質을 本然之性에 合致시키는 工夫가 필요하다. 이것이 「變化氣質, 復性工夫」라고 한다. 道學家의 立場에서 보면 고려의 氣는 氣質之性에 해당되기 때문에 氣의 作用을 전폭적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렇기에 省察이 그만큼 중요한 工夫로 강조된다.

성찰은 心이 내 가까이 있을수록 용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心이 멀리 나에게서 달려 나가서는 안된다. 中心에서 가까이 있어야 하고 中心 그것이어야 한다. 멀리 나가 있는 마음을 中心으로 「向」하게 해야 한다. 이와 반대는 心이 外物을 向해서 달려 나가는 것이다.

139) 北宋 邵雍의 觀物內外篇의 영향도 있다고 본다.

140) 北宋 程伊川은 書經 旅獒篇의 「玩人喪德, 玩物喪志」를 끝어와 作文 역시 玩物이기에喪志한다고 했다. 二程全書, 卷一, 遺書 卷十八, 伊川先生語, 中華書局印行.

전자는 「心의 向內」라고 하다면 후자는 「心의 向外」라고 하겠다. 전자는 나를 中心으로 하여 달려 들어오려는 힘이기에 「向心力」이라고 하고 후자는 반대이기에 「離心力」이라고 한다. 후자가 고려시대 詩文家의 태도라면, 전자는 道學家系 詩文家의 태도라고 하겠다. 이래서 道學에서는 「學者의 詩文」과 「詩文家의 詩文」으로 구분하게 된다.¹⁴¹⁾ 그러나 위의 두 가지 作用은 調和가 절대 필요하다. 離心力과 向心力を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안 되면 心의 主宰力이 상실된다. 居敬이 안 된다. 따라서 第四도 안 된다. 「正心, 心正」이 안 되는 것이다. 心은 性과 情을 統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 「心統性情」이라 한다. 그래서 心의 「性靜·情動」의 幾微를 정밀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바탕에 깔고 있는 道學이기에 義理가 중요하게 되고 義理 探究가 중요한 工夫이다. 이런 工夫가 為己之學이며 為己之學은 「向內, 向裏」를 강조한다. 따라서 자연 「向心」의 文學을 강조하지만 여기만 치우치면 「一偏」이 되어 寬展樂易한 여유가 없어지기에 「離心」의 文學도 同時에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두 종류의 文學의 전혀 별개의 것인가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곧 「不即不離」의 관계라고 본다. 「相害」가 아니고 둘이 서로 필요로 하는 「相須」의 관계라고 보면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武夷櫂歌에 대한 退溪의 理解가 어떤가에 생각을 돌려 보자. 한마디로 말해서 朱子가 九曲의 景物을 보고 느낀 바를 적은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作者의 입장에서 作詩意圖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第九曲에 대해서는 「學問入道次第」로 보는 註家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같은 이유로 河西의 태도에도 찬성하지 않았다. 高峯의 「尋常看作戒警之事」나 「戒遊者不可舍此而他求也」¹⁴²⁾ 등을 註家의 「離合之說」에 이끌렸다는 이유로, 곧 第九曲을 究竟處로 보는 明彦의 견해에도 찬동하지 않았다. 왜냐면 朱子가 그렇게까지 拘拘한 문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는 孔子의 日常生活의 規範과 感情이 원만한 조화를 이룬 때에서도 알 수 있다.¹⁴³⁾

이는 朱子盲信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道學에 근거를 둔 생

141) 李源鳳, 退溪先生의 文學觀, 抄稿, 李退溪文學批評小敘.

142) 奇大升, 高峯全集(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發行 1979. 3. 10 復刊) 往復書, 卷一, 別紙武夷櫂歌和韻 中 第九曲斗案語임.

143) 錢穆, 修訂重版 四書釋義 論語要略 第三章 孔子之日常生活, 臺灣, 學生書局 印行, 中華民國 六二七年 七月 再版(學初版).

각이다. 退溪는 「매미소리」 是非에서도 「歇後語냐」「緊切語냐?」 하는 문제로 제자와 심각한 異見을 보였던 것이다.¹⁴⁴⁾ 이는 「心工夫」에 있어서의 「本末」 是非라고 하겠다. 질문한 제자는 「매미소리」 따위는 마음 공부에 (「心學」에) 歇後語 곧 末이라는 태도였다. 그러나 퇴계는 「本末兼舉」의 원만한 사고에까지 냥아 있기에 자신 있게 「매미소리」 담긴 朱子의 편지를 그의 節要書에 실었던 것이다. 末도 「道의 一端」이기 때문이다. 一端은 分殊다. 理一分殊라는 입장에서 보면 分殊가 중요한 것이다. 특히 朱子가 延平에게서 들은 旨訣 中의 하나가 바로 分殊의 強調다. 異端과 區別되는 儒家의 獨特한 理論이다. 退溪도 절대적 영향을 받았을 것이기에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理一은 本이요 分殊는 末이다. 本없는 末이 없고 末 없이 本이 견제할 理가 없다. 本에만 지나치게 읽매이면, 「사람으로 하여금 拘束切蹙하게 하여 寛展樂易, 頤慕興起의 마음을 없애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¹⁴⁵⁾고 한 것이다.

이런 道學的 理一分殊 理論이 바로 註意를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이유이다. 그러나 退溪는 作者 편에서만 詩評을 하는 게 아니고 讀者 편에서 詩의 功用을 認可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는 現代批評의 「意圖의 誤謬」와 배치되는 것 같으나 오히려 詩를 「作詩, 知詩, 用詩」三方面으로 관찰하는 원만한 批評태도라 하겠다. 또 七絕一首를 가지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상세하고 집요하게 사색을 거듭하여公正한 解釋을 내리고자 한 진지한 태도는 높이 살 만하다. 이런 뜻으로 봐서도 退溪의 批評이 韓國文學批評史上에서 차지하는 位置는 상당하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精查派의 分析도 무색 할 정도라 하겠다.

III. 結

退溪는 聖學(心學)에 대한 열의가 투철했다. 그래서 設心이 차라리 聖人을 배워 그 경지에 못 미치고 말지라도 한 가지 착한 일로 이름을 얻고자 하진 않았다고 했다.¹⁴⁶⁾ 또 聖人之學 義理之學을 하자면 窮理가 必要한데 이는 居敬에서 가능하다. 居敬은 곧 「心의 主宰力」의 지속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讀書가 필수적이다. 이 모든 것이 바른 마음(正心)에서

144) 抽稿, 李退溪文學批評小敍.

145) 同註 144)

가능하다. 마음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心은 理氣를 兼하고 性情을 統攝하는 것」이기에 佛家異端과 다르다.¹⁴⁷⁾ 곧 「心統性情」에서의 心學이다. 退溪는 어려서 學問에 뜻을 두었으나 明師友가 없어 道를 깨닫지 못했고, 더군다나 벼슬길에 골몰하여 素業에 전념할 수 없었다. 늦게 朱子大全을 읽고부터 (道量) 조금 봤으나 깊이가 얕다고 말했다.¹⁴⁸⁾ 또 어떤 册을 읽어야 하나가 문제이다. 하루에 義理之書와 文章之書를 半半씩 읽으라는 先儒의 말을 引用하면서 文章之書만 읽어서는 「用工之地」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¹⁴⁹⁾ 곧 義理之書를 읽어야 된다는 얘기다. 이는 바로 心工夫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心工夫은 「先涵養 後察識」의 순으로 動靜體用을 아울러 해야 한다. 이는 「作用是性」으로 보는 佛家의 心觀과는 다르다. 儒家(程朱·退溪)에서 「作用」은 「氣·情」의 次元이기 때문이다. 絶對善이 아니고 有善有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全體大用, 通體達用의 義理之書를 基本으로 하고 文章之書도 읽은 것이다. 文章之書라고 하여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居敬(持敬)에서 읽으면 求道에 도움이 되기에——지나치게 拘拘해 지거나 拘束切蹙하지 않고 寬展樂易·願慕興起하는 心情을 일으키기에——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學文所以正心」¹⁵⁰⁾을 강조한 까닭이다.

곧 心學에서 文學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니 一舉手一投足이 모두 學問에 관련 된다는 말이겠다. 따라서 朱子의 詩文은 더욱 중요한 것이다. 거기다가 李剛而가 朱子詩를 刊行코자 하니까 愛誦하는 朱詩를 더 넣어서 出刊해 달라고 편집, 조판에까지 세심히 도움말을 주면서 부탁한 것이다. 朱詩를 모두 열심히 읽었지만 出刊時 더욱 言及된 詩들은 武夷櫂歌十首를 비롯하여 武夷雜詩, 武夷洞天, 宿休菴, 齋居感興二十首, 雲谷二十六詠, 雲谷雜詩十二首, 奉同張敬夫城南雜詠二十首, 西林院諸詩, 南嶺唱酬集, 東

146) 「……向上之心 至死如一日。其設心以爲 寧學聖人而未至，不欲以一善成名。嘗見世人有自許太過者 深以爲非，必以爲戒(鶴錄)」。退全，冊四，言行錄，卷二 類編 30頁 上左。

147) 唐君毅, 中國哲學原論, 導論編 原心, 臺灣, 學生書局印行, 中華民國六十八年二月四版(臺三版)。

148) 「先生曰 余自少有志於學，不可謂無學問之功，然不得與明師友難疑辨惑。於道理殊無的見。學未優 而遽至於登仕，則又不專於素業矣。自近年讀朱子大全後稍有見處，然安敢測其門牆之深奧乎(雪錄)。」同註 146) 24頁 上中。

149) 「先生曰 先儒云 一日之間 半則讀義理之書，半則讀文章之書。學者若欲求道而專讀文章之書，則難用工之地矣(雪錄)。」同註 146) 28頁 上右。

150) 同註 146) 180頁 上右。

歸亂藁, 百丈山六詠 등이 있고, 朱詩를 奇高峯과 李龜巖에게 풀이해 준 것도 있으며 作者를 가려내는 訓蒙詩 등도 주요 관심의 대상이었다. 또 朱子詩를 「和, 次, 用韻」한 것이 八種이나 되는데 題目에서 날자가 같은 것, 旨趣가 같아서 빌어 온 것, 처지가 비슷하여 끌어 온 것 등 다양하며, 이 밖에도 細·간접으로 끌어다 자신의 詩에 녹여 부은 것이 수 없이 많다.

本論文의 主要內容이 되는 武夷圖歌十首에 대해서는 註意에 忠實했던 金河西의 태도에도 찬동하지 않았고, 특히 第九曲에 대해서는 奇大升의 견해에도 동조하지 않으면서 二十餘年 思索을 거듭하여 얻은 獨自的 解釋을 제시했던 것이다. 金·奇二人은 그저 朱子의 本意를 생각하기 전에 金은 전적으로, 奇는 부분적으로 陳註에 이끌렸으나, 退溪는 이와는 달리 作者인 朱子自身의 本意를 「景致之語, 本只爲景物而設」이라 하여 「學問入道次第」로 풀이한 註意를 拘拘하다 하여 비판하고 朱子를 胸懷가 넓은 人格者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에서 멀어지지 않고 讀者 편에 서서도 欧歌의 効用을 인정하고 있으니, 곧 李剛而에 보낸 答書에서 「註家가 先生의 本意를 정확히 터득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실로 註解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이는 作詩, 知詩에만 국한한 批評이 아니라 用詩에도 심각한 관심을 쏟는 증좌라고 하겠다. 이는 朱子의 「作詩, 知詩, 用詩」三方面의 批評態度와 같은 것이라 하겠다.¹⁵¹⁾ 이는 現代批評態度에서 말하는 「意圖的 誤謬」에 저촉되는 듯하나 오히려 批評의 범위를 넓힌 셈이며 七絕一首를 가지고 20여년 집요하게 分析하고 사색을 거듭한 것은 現代分析批評에 필적할 만한 노력이며 精查派의 分析에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批評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 韓國文學批評史上에 하나의 뚜렷한 道學家文學批評의 봉우리를 쌓은 게 아닌가 한다. 또 武夷圖에 대한 관심도 至大하여 우리 나라 繪畫史에도 적잖은 기여를 했을 듯하며 그림을 하나의 장식품으로 취급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일종의 경종이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생각하게 해 주고 있는 것 같다.

文理도 不足한 치지에 힘겨운 문제에 손을 대어 잘못도 많고 억지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읽으시는 분의 많은 질정을 바란다.

151) 郭紹虞, 朱子之文學批評, 近代文史論文類輯 中國文學批評家與文學批評二, 朱東潤 等. 臺灣, 學生書局印行, 中華民國 六十年 十月 初版.